

연구총서 2002-05

•

#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우 영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한 물리적 통제체제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강력히 통합된 사회체제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징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징체계는 사회구성원들이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면서 체제통합의 중요한 기제가 되기도 한다. 북한이 주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징체계를 만들어왔으며, 각 상징체계들이 어떤 기능을 하여왔는가 그리고 주민들은 상징체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북한 사회통합의 특성을 알아보며, 동시에 상징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북한사회체제의 변화과정을 조망하는데 이 글의 연구목적이 있다.

## I. 서론

그 동안 이루어진 북한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물리적 통제기구나 조직적 통제, 사상교양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로 통제정책 등 거시적인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주민들이 북한체제에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의 상징체계이다. 북한이 주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징체계를 만들어 왔으며, 상징체계들이 어떤 기능을 하여

왔는가 그리고 주민들은 상징체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북한 사회통합의 특성을 알아보며, 동시에 상징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북한사회체제의 변화과정을 조망하는데 이 글의 연구목적이 있다.

## II. 상징체계와 사회체제

인간이 다른 생물체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의미를 만든다는 것은 곧 상징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것도 상징체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각종 언어(문자 혹은 음성언어)도 대표적인 상징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인간들은 각종 상징체계와 더불어 살고 있다.

다른 분야도 그러하지만 정치체제의 상징체계와의 관련성도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다. 이것은 상징이 정치적 주장들의 전달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상징적 수행이란 정치체제의 다양한 수행능력들 가운데 하나로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자본의 축적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체계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는데, 신생국의 체제발전과정 특히 지배권력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에서도 상징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속성 특히 선전의 정치사회적 중요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윤리적 동기유인이 체제구성원의 행위를 자극하는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선전·선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각종 상징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III. 북한 상징체계의 특성

#### 1. 북한 상징체계의 종류

공화국 국기: 북한의 미술가들은 붉은 바탕 위와 아래에 흰색과 푸른색을 칠하고 가운데 흰동그라미를 만들었는데, 김일성은 흰 동그라미 안에 오각별을 넣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홍람 오각별기로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헌법초안이 채택될 때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최고회의에서는 태극기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새로운 국기가 채택되었다.

애국가: 애국가는 북한 헌법에 국가로 규정되어 있다(165조). 사회주의 헌법에는 국장, 국기, 수도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2년 헌법 개정과정에서 국가가 추가되었다. 북한 애국가는 상징깃발이 만들어진 지기 전인 1947년 6월에 만들어졌다.

국화: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 목란이 등장하여 김일성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1991년 4월 10일 국화로 공식 발표되었다. 김일성은 목란이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그대로 담은 것 같으며 과거 항일투쟁시기에도 이 꽃을 통하여 조국을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당기·당마크: 로동당 당기와 당마크 역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북조선 로동당’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것이었으나,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당마크와 당기가 완성되었다.

진달래: 광복 후 북한에서는 진달래를 조국의 진달래나 조선의 진

달래라고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1939년 조선인 민혁명군의 조국으로서의 진군 때 향기로운 분홍빛 진달래가 그들을 부모형제들처럼 맞아주어 김일성과 김정숙 등 대원들을 숭고감에 사로잡히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붉은색·붉은기: 김일성은 붉은기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기치라고 할 정도로 붉은색과 붉은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반면에 백색은 반혁명적이며, 황색은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2. 북한 상징의 생성과 유포: 혁명 구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슬로건을 표어라고 표현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호나 그것을 직관화한 표어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구호란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상, 과업 요구 등을 간결한 형식으로 나타낸 호소 또는 그것을 표현한 글”이라고 말하고 있고, 표어란 “일정한 사회정치적인 요구나 투쟁목표 등의 실현으로 대중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진 간결하고 호소적인 글을 쓴 대중선전 직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령적 구호는 당중앙 비서국 선전선동부 선전과에서 작성한다. 당중앙 비서국 선전선동부에서는 당 및 정부 각 부서들에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구호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해당부서에서는 당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 분야별 당면과제, 달성해야할 계획 목표, 해당분야의 중심고리 등을 고려하여 구호를 작성하여 선전선동부에 제출한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선전담당비서를 경유하여 총비서의 비준(결재)을 받아 확정한다. 이 과정에 당중앙 조직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조(당창건일 행사는 조직지도부가 총괄하므로 그 일환인 구호의 작성 제시도 조직



지도부와 교감 유지)하여야 한다. 검열은 당에서 작성한 구호이지만 그것을 플래카드나 표어판 등에 제시할 때에는 내각 출판총국 검열부 또는 현지 파견된 검열원들에게 검열을 받고 통과되어야 게재된다.

## IV. 북한 상징체계의 변화

### 1. 1950년대 혁명구호

혁명구호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로동신문에서 경제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정치 분야이며, 의식 전환 문제 등이 다음을 잇고 있다. 정치적인 구호의 경우 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2. 1960년대 혁명구호

혁명구호 가운데 경제 관련 구호보다 정치관련 구호가 더욱 많다는 점에서 1950년대와 다르다. 다음으로는 이념과 사상교양 분야의 혁명구호들이 뒤를 잇고 있다. 혁명구호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정치 중심으로 가는 것은 1966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진다. 1966년의 경우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 25개 가운데 정치가 15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정치 관련 구호의 빈도가 많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용상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 시기에 정치적 구호는 당이나 반제 등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김일성 및 수령에 대한 강조가 압도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 3. 1970년대

1970년대 혁명구호에는 정치관련 구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 구호는 과거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으로!”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등 경제적 곤란함이 드러나는 구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구호 가운데서는 수령과 관련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수준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전 시기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유일지배체제가 사회저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1980년대

1980년대의 혁명구호 가운데 정치와 관련된 구호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인 구호의 경우 지난 시기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구호가 고루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관련 구호에서는 수령에 대한 것이 많지만 통일관련 혁명구호가 많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 5.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혁명구호에서도 정치 관련 구호가 다수였다. 이 시기에 정치관련 구호가 많았던 것은 근본적으로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관련 구호 가운데 수령 관련 구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된 구호가 많다. 1990년대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상징되는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구호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구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과 함께 경제구호의 경우도 추상적인 경향이 강하는 것은 경제난을 극복할만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여의치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기간에 경제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선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6. 북한 상징체계 변화의 의미

북한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혁명구호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다.

첫째, 혁명구호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체제변화가 혁명구호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시기별로 보면 변화의 주된 요인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제의 변화에 따라 혁명구호의 내용이 바뀌었지만, 1960년대 이후 정치적 구호의 비중이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여러 가지 혁명구호가 존재하지만 각 혁명구호 간에는 일종의 위계관계가 있으며 그 정점에는 김일성(사후에는 김정일) 관련 구호가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과거지향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의 혁명구호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V. 맺음말

사회주의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 북한이 구축한 정치적 상징체계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체제의 발전

과 유지를 위하여 고안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도 북한의 정치적 상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체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체제의 개혁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존에 구축된 상징체제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체제전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고의 발현을 위해서도 기존의 상징체제는 역기능적일 수 있다.

북한체제의 미래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차원에서도 현 단계 북한의 상징체제는 문제가 적지 않다. 체제이념의 우열은 차치하고라도 남한은 정치적으로 민주나 다원주의 등이 정치적 상징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절대주의나 전체주의적인 요소들이 정치적 상징체제에서 심화됨으로써 양극은 더욱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목 차 -

<b>I. 서론</b>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대상 및 방법 .....	3
<b>II. 상징체계와 사회체제</b> .....	6
1. 상징체계의 사회적 역할 .....	6
2. 사회주의 체제와 상징체계 .....	13
<b>III. 북한 상징체계의 특성</b> .....	17
1. 북한 상징체계의 종류 .....	17
2. 북한 상징의 생성과 유포: 혁명 구호의 경우 .....	24
<b>IV. 북한 상징체계의 변화</b> .....	29
1. 1950년대 혁명구호 .....	29
2. 1960년대 혁명구호 .....	38
3. 1970년대 .....	53
4. 1980년대 .....	58
5. 1990년대 이후 .....	64
6. 북한 상징체계 변화의 의미 .....	84
<b>V. 맺음말</b> .....	95
참고문헌 .....	98

- 표 차 례 -

<표 1>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1950년대) ..... 30  
<표 2>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50년대) ..... 34  
<표 3>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1960년대) ..... 41  
<표 4>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60년대) ..... 51  
<표 5>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70년대) ..... 55  
<표 6>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80년대) ..... 60  
<표 7>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1990년대) ..... 68  
<표 8>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90년대 이후) ..... 77

## I. 서론

### 1. 문제제기

소련을 비롯한 동구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대폭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기존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비록 자립경제를 지향하였다고는 하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체제를 유지하였던 북한으로서는 국가사회주의의 쇠퇴와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은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타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남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북한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난으로 표현되는 체제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경험한 자연재해는 심각한 식량부족을 야기하여 북한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이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면 사회주의체제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경험한 문제를 나눠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외적 환경도 북한의 체제유지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체제가 붕괴되거나, 급격하게 현 체제를 전환할 가능성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거의 유일하게 국가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체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곤경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북한체제 유지의 기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북한의 체제유지 기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냉전기에 유행하였던 전체주의적 시각에서는 물리적 억압을 기반으로 국가사회주의의 특성을 설명하였고, 북한의 체제유지 능력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경향이 대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적 시각이 다분히 냉전적 사고의 유산이며, 여타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한 현실에서 북한이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시각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사회 통합 능력에 대한 연구는 북한체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은 북한체제가 고도로 통합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체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북한 체제유지 능력을 설명하는데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북한의 사회문화체제를 주목함으로써 북한체제를 균형적으로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이루어진 북한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물리적 통제기구나 조직적 통제, 사상교양 문제에 관심을 기울면서 주로 통제정책 등 거시적인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반면에 주민들이 북한체제에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관심은 상대

---

1) 김병로, 「북한사회의 통합방식과 기독교의 유사성」,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 편,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두란노, 1994); 김병로, 「북한의 자발적 사회통합 메카니즘」, 『북한체제의 유지 MECHANISM』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8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1995. 11. 10) 발표논문;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의 상징체계이다. 북한이 주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징체계를 만들어 왔으며, 상징체계들이 어떤 기능을 하여왔는가 그리고 주민들은 상징체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북한 사회통합의 특성을 알아보며, 동시에 상징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북한사회체제의 변화과정을 조망하는 것이 이 글의 연구목적이다.

일차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상징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으며, 사회주의체제 연구에서도 선전과 선동의 차원에서 상징체계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동안의 상징체계에 대한 연구와 사회주의 연구의 상징에 대한 관심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상징체계 연구를 위한 이론적 검토를 일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다양한 상징체계를 알아보고, 상징체계가 생성되고 유포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상징체계의 하나인 혁명구호를 통하여 북한의 상징체계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북한체제 변혁과 상징체계와의 관계를 따져보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상징체계는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자랑하는 ‘기념비적 건물’들도 중요한 정치적 상징체계이다. 평양을 장식하고 있는 개선문이나 주체사상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군중가요나 미술작품 등 선전선동을 기본목표로 하는 각종 문학예술작품들도 정치적 상징체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상징체계가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4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바를 설득하기 위하여 기능 한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북한의 상징체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분석의 초점은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구호에 맞추려고 한다.

북한은 구호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거리 의 건물이나 건물내부의 복도 등지에 그리고 심지어 산악지역의 바위에도 다양한 혁명구호가 적혀있다. 이러한 혁명구호들은 직설적으로 해당 시점의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혁명구호의 분석은 해당시점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을 북한주민에게 내면화하는 기제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특히 혁명구호는 다른 상징체계와 달리 비교적 시점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적 상징체계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상징체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글이 분석하고자 하는 혁명구호는 로동신문과 조선중앙연감에서 추출하였다. 왜냐하면 로동신문과 조선중앙연감이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언론매체이기도 하지만, 혁명구호가 나타난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분석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로동신문은 주로 1면에 제호 옆이나 아래에 혁명구호가 게재된다. 그러나 로동신문은 일간지로서 현재까지 발간된 신문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수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매달 1일자만을 기준으로 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를 선택하였고, 이와 더불어 당대회 및 정치적 기념일 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 발간된 신문의 구호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현재 로동신문의 마이크로 필름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결여된 해가 있다. 북한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잡지들과 마찬가지로 조

선중앙연감의 경우는 주로 앞쪽에 혁명구호가 제시되고 있다. 조선중앙연감은 일년단위로 출간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혁명구호 분석은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혁명구호가 다루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치(이념), 경제(산업), 일상생활, 개인의 의식 수준으로 나누어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치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의 변화여부이다. 특히 이념적 차원에서 변화가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전통적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그리고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정당화 이념의 변화여부가 중요한 분석기준이 된다.

셋째, 대외인식의 변화이다.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여부, 제국주의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남한에 대한 논의가 있는가가 분석기준이 될 것이다.

넷째, 구호가 구현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직설적으로 강요하는지, 아니면 전형을 강조하는 등의 간접적 언술이 활용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 II. 상징체계와 사회체제

### 1. 상징체계의 사회적 역할

인간이 다른 생물체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의미를 만든다는 것은 곧 상징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것도 상징체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각종 언어(문자 혹은 음성언어)도 대표적인 상징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인간들을 각종 상징체계와 더불어 살고 있다. 복잡한 도시의 교통의 중심에 있는 것은 신호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붉은 색이면 서고 푸른색이면 간다는 의미가 공유되지 못한다면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책으로 나타나는 사상이나 철학은 물론이고 과학기술도 상징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유통이나 다음 세대로의 전달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인류의 모든 업적은 상징의 사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삶을 규정하는 것도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대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받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기본 법칙인  $E=MC^2$ 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식을 구성하는 문자와 그 문자가 뜻하는 의미체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상징을 통하여 일을 하며, 일하면서 상징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은 대중적 상징을 창출하고, 종교인은 종교적 상징을 만들어 낸다. 또한 방송인은 온갖 상징을 각색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상징은 모든 문화의 기초이며, 이러한 맥락

에서 독일 철학자 카시러(E. Cassirer)는 인간을 상징적 동물로 표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일상적인 사회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상징체계는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다. 근대 인문과학에서부터 시작된 상징에 대한 관심은 특히 사회학이나 인류학이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화의 개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인간은 상징체계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인간들과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체계를 습득하여 내면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상징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생활은 가장 전형적인 것이 된다. 문화를 커뮤니케이션, 혹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상징체계라 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 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내의 관습, 가치, 규범, 제도, 전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게 된다.

상징체계는 인간의 정신이 그것을 통해서 외부세계 혹은 내부세계를 이해하고 관계하는 의미를 지닌 언어, 문자, 그림 등과 같은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카시러는 인간의 의식은 표현되지 않으면 시간에 따라 그냥 흘러 다닐 뿐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이 흐름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형성하는데, 이 형성은 어떤 매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

2) 상징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인류학은 상징인류학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인간 행동의 중요한 동인은 물질적 욕구의 합리적 충족에 있다고 보는 인간관에서 의미와 상징 작용이야말로 인간적 특징으로서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대 인간과학의 시점에서의 변화는 인류학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폭넓은 과학의 영역에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상징의 중요성도 더불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카지와라 카게야키, “상징론,” 아야베 쓰네키오 엮음,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이종원 옮김 (서울: 인간사랑, 1987), p. 161.

다고 보고 있다. 그 매개를 카시러는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sup>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직접적인 몸짓이나 지시가 아닌 추상화된 상징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화와 지혜를 전파하고 전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상징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은 기호(sign)이다. 기호에는 신호(signal)와 상징(symbol)이 있으며, 신호와 상징은 단순히 의미를 갖느냐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구체적인 기호의 경우를 신호라고 하고 추상적 기호를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호학에서는 기호를 기표(記表: signifiant)와 기의(記意, signifi)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예를 들었던 신호 등의 경우 붉은 색은 기표가 되고 멈춘다는 것은 기의가 되는 것이다. 만일 신호등의 기의가 바뀌면 교통질서가 바뀌듯이 상징체계의 핵심인 기호가 바뀌면 일상생활이 바뀌고 심지어 인간 자체까지 바뀔 수 있다. 특히 기호학에서는 모든 삶이 기호라고 보면서 기호와 상징은 문학, 예술, 건축, 과학, 공학, 군사학, 정치학, 의학, 동물학, 사회학, 광고학, 천문학, 심리학, 인류학, 법학, 종교학, 철학 등 모든 학문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호로 이루어진 상징체계는 겉으로 드러나 객관적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 초경험적 세계에 감추어진 주관적 내용의 차원을 지닌 것이다. 또한 그것이 처한 맥락(context)에서 인식주체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정서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sup>4)</sup> 이러한 맥락에서 상징체계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인도하는 사물·언어·행위·추상적 구성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E. Cassirer, 『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의 개념 외』, 오향미 옮김 (서울: 책세상, 2002), p. 108.

4) 붉은 장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연인에게 주는 붉은 장미는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장례식의 관위에 놓인 붉은 장미는 슬픔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징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첫째, 모든 상징은 다른 무엇인가를 대변한다. 신호등의 색깔이 운행방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상징은 이중적 지시(double referent meaning)의 의미를 보유한다. 기표와 기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 상징은 진실과 허구의 양자를 포함한다. 꽃이 아름답지만 그것이 전달하려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넷째, 모든 상징은 이중적 적합성을 가진다. 어떤 상징이든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징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상징의 개념 속에는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첫째는 은유성(metaphor)으로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보듯이 특정 상징이 표현하고 있는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계성(marginality)으로 상징자체가 아니라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호성(ambiguity)으로 상징 안에 다양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sup>7)</sup>

- ① 언어: 말(연설, 웅변, 대화, 논쟁), 글(단어, 표어, 슬로건 기록), 기호(논리적, 수학적, 일상적 기호)
- ② 행위: 일상적 행위(신호, 몸짓), 규범적 행위(의례, 의식, 주술)
- ③ 상상물: 신비적 산물(신화, 전설, 꿈), 예술적 산물(음악, 미술,

5) W. Urban, *Language and Reality : The Philosophy of Language and the Principles of Symbol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Pub, 1939).

6) 유영옥·정우일, 「상징정책론」 (서울: 홍익제, 1991).

7) 유영옥, “북한통일정책의 상징성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 (1995), p. 453.

공간구성)

- ④ 관념: 정치적인 것(이데올로기, 준이데올로기 paraideology), 비정치적인 것(신념, 태도, 가치관)
- ⑤ 인물: 긍정적 인물(영웅, 성인, 국부, 위인, 애국자), 부정적 인물(악인, 적, 반역자, 침략자)
- ⑥ 사물: 인위적인 것(깃발, 건축물, 조형물, 도구, 의상, 뱃지), 자연적인 것(해, 달, 별, 산, 나무, 돌, 물, 동물)
- ⑦ 사건: 역사적인 것(건국, 전쟁, 발전, 발명, 혁명), 극적·돌발적 사건(자연재해, 정치적 사태, 사회적 사건)
- ⑧ 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문화제도

상징과 상징체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을 비롯하여 주로 사회심리학에서 연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은 유의미한 몸짓을 사용하며, 인간은 상호간에 서로의 태도를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에 의하여 산출된 의미에 기초하여 행동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인간들은 상징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체제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상징인류학에서도 상징을 중요하게 취급하여 왔는데, 대표적인 학자인 기어츠(C. Geertz)는 문화를 기술, 분석하고 상징을 통해 사회적 행위자가 이 세계의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sup>9)</sup>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도 상징은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가 정치체제와의 관련성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징은 정치적 주장들의 전달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식되어왔기

---

8) Her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New Jersey: Prectice-Hall, 1969) 참조.

9)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 Selected Essays* (New York : Basic Books, 1973).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적 수행이란 정치체제의 다양한 수행능력들 가운데 하나로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자본의 축적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맥락에서 코헨(Cohen)은 정치적 인간은 상징적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상징체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11)</sup>

정치적 의미라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상징은 다음 몇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정치적 언어(강령, 공약, 슬로건)
- ② 정치적 행위(의식, 대회, 시위)
- ③ 정치적 신화(혁명신화, 영웅신화)
- ④ 정치적 관념(이데올로기, 준이데올로기)
- ⑤ 정치적 인물(애국자, 침략자, 적)
- ⑥ 정치적 물건(깃발, 조형물)
- ⑦ 정치적 사건(전쟁, 혁명)
- ⑧ 정치적 제도(헌법, 정부조직)

최근에 상징 및 상징체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화권력, 문화계급이라는 문제가 중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이다. 그는 아비투스(Habitus),<sup>12)</sup> 장(Champ), 상징자본

10) 유영옥, “김정일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상징전략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1996), p. 291.

11) 강명구·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연구,” 『한국사회학』 31집 (1997 봄)

12) 부르디외에 의하면 지각, 평가, 성향의 체계는 강의 구성적 구조 속에서 객관화되고, 행위자 혹은 집단의 정신구조 속에 내재화 됨. 부르디외는 이러한 성향들의 체계를 아비투스로 개념화하였다. 현택수, “문학예술의 사회적 생산,”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

(Symbolic Capital),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상징투쟁(Lutte symbolique), 상징폭력(Violence symbolique) 등 새로운 개념들을 중심으로, 권력지배의 상징투쟁 및 상징폭력의 메카니즘과 계급문화 재생산의 구조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부르디외는 사회문화의 공간을 위계화된 구조로 보면서, 사회공간 속에서 지배계급은 위계화된 기존의 상징질서체계를 피지배계급에게 정당한 것으로 오인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질서는 가정 및 교육체계를 통하여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사고, 판단, 취향의 아비투스를 형성하는데 아비투스는 사회질서와 권력을 사회적으로 객관화하여 스스로 인정하도록 인간내부에서 작동하는 기제라는 것이다.<sup>13)</sup>

부르디외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사회의 계급이나 남녀관계,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지배-권력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상징적 권력투쟁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본, 문화자본과 상징자본은 집단이나 계급의 권력투쟁과 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각 집단과 계급은 상징투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은 상징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폭력은 지배의 힘이 피지배자의 정신과 신체에 내면화되어 복속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배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부르디외는 전통적인 계급기반의 권력관계를 넘어서는 문화지배가 현대사회의 특징적 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상징적 재생산을 중요한 기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문학예술의 사회적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언론매체도 마찬

---

학의 이해」(서울: 나남, 1998), p. 39.

13)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pp. 6~7.

가지라는 것이다.

## 2. 사회주의 체제와 상징체계

상징체계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는데, 신생국의 체제발전과정 특히 지배권력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어츠는 인도네시아의 분석에서 상징의 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어떤 지역보다 일정 면적당 종교적 상징의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서 수카르노가 이러한 상징들을 수집하여 신생 공화국의 범교리적 국가종교로 정리하려는 의욕을 갖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고 있다.<sup>14)</sup> 수카르노는 봉기를 주도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슈누 무르티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에 의하여 지지되는, 그 노예인 자본주의를 폐지하라! 신은 그것을 성공시킬 힘을 이슬람에게 부여하신다”라고 주장하였다. 집권한 이후 수카르노는 “나는 칼 마르크스의 추종자이다.... 나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모든 사조와 이데올로기가 내 안에서 만나도록 하였다. 그것들을 섞고, 섞고, 또 섞어서 지금의 수카르노가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신생국의 경우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상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당성이라는 고전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에서 대권을 장악하고 국민으로부터 그것을 지키는 것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가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겨지게 하고 싶은 사람들, 즉 국민들에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립을 성취하였을 당시 엄청

---

14)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문옥표 옮김 (서울: 까치, 1998), p. 368.

나게 생각되었던 정치적 과업들-외세 지배의 종결, 지도체제의 창출, 경제발전의 도모, 국민적 통일감의 유지-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업들 외에 또 하나의 다른 과업이 필요한데 새로 만든 국가 제도에서 외국냄새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징조작의 대부분은 국가와 사회간의 문화적 간격을 없애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구호, 운동, 기념비 시위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국가를 토착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사회주의에서도 상징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속성 특히 선전의 정치사회적 중요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는 물질적 동기유인으로 체제구성원을 자극하고, 물질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윤리적 동기유인이 체제구성원의 행위를 자극하는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선전·선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sup>16)</sup> 따라서 선전의 역할은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혁명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국가건설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선전일군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을 민주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사업이 선전일군들에 의하여 수행되며 또한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올바른 정책들이 다 선전사업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침투되고있습니다. 선전사

15) 위의 책, pp. 372~73.

16) Pierre Lacroff, “사회주의 선전: 그 역할과 행태,” 박호진 엮음, 『문화·계급·선전』 (서울: 백산서당, 1986) 참조.

업이 잘되면 인민들속에 인민위원회의 모든 정책이 정확히 침투될 것이며 만일 선전사업이 잘되지 못하면 인민들은 인민위원회의 정책들을 잘 모르게 될것입니다.<sup>17)</sup>

선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나 단순히 권력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유지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특히 억압적인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체제에서는 지배집단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하여 선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가 히틀러와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사회주의에서 선전이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선전의 기제는 국가에 따라 주안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경우는 엘리트와 소비에트의 제휴, 선전기관으로서 ‘코민테른’을 활용하고, 예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대상의 사상교육 강화 등을 추구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대중주의를 추구하면서 우화와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문화혁명이라는 대규모 이벤트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7) 김일성, “민주조선건설에서의 선전일군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각 도선전관계책임자련석회의에서 한 연설, 1947년 9월 7일), 「김일성저작집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8) 유일상·목철수 편저, 『세계선전운동』(서울: 이웃, 1989) 6장 참조.

19) 위의 책, 7장 참조. 나치 독일에서는 깃발 선전을 주로 활용하였지만 이 밖에 다음의 몇 가지 방법으로 선전을 전개하였다. ① 유태인은 나쁘다는 식으로 낚인을 찍어 버리는 수법(스케이프 고트 행위), ② 자기 주장을 미화시키는 방법, ③ 위광을 가진 대상을 이용하여 선전 당하기 쉽게 하는 수법, ④ 유명인사나 증오 받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수법, ⑤ 평범하고 대중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유도하는 수법, ⑥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속임수를 쓰는 수법, ⑦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식으로 떠나는 버스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수법. 임채욱, 『북한 상징문화의 세계』(서울: 화산문화, 2002), p. 25.

상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만의 특징은 아니다. 뒤르켐의 경우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가 상징을 중시하였으며 특히 사회통합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up>20)</sup>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념과 상관없이 체제의 유지 발전에서 상징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 특히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징의 생성이나 유포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상징의 생산과 유포 관리에 이르기까지 국가(당)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0) E. Durkheim,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Joseph Ward Swain (Glencoe, Free Press, 1947).

### III. 북한 상징체계의 특성

#### 1. 북한 상징체계의 종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다양한 상징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국가건설, 체제유지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단구조로 인하여 남한과 체제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적 사회통합과 지배구조의 정당화를 위하여 상징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도 신생 독립국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체계의 문제, 상징조작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가. 공화국 국기

김일성이 귀국하던 시점에는 환영하던 시민들이 태극기를 사용하는 등 1947년까지는 태극기를 사용하지만 이후 남홍색공화국기 또는 홍람오각별기로 불리우는 북한 국기가 등장하게 된다. 이 기는 헌법제정 작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졌는데, 북조선 인민회의 제3차 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새로운 국기 제작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국기 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렸다.<sup>21)</sup>

21) 김주경, “우리나라 국장과 국기에 깃든 이야기,” 『조선문학』 (1978 9); 김영희, “우리나라 국장과 국기에 깃든 이야기,” 『조선문학』 (1974 1).

우리나라 국기와 국장은 어느 나라 것보다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오랜 기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애국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게 하며 조선인민이 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 싸우려는 애국적 열의와 혁명승리의 불패의 위력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북한의 미술가들은 붉은 바탕 위와 아래에 흰색과 푸른색을 칠하고 가운데 흰동그라미를 만들었는데, 김일성은 흰 동그라미 안에 오각별을 넣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홍람오각별기로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헌법초안이 채택될 때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최고회의에서는 태극기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새로운 국기가 채택되었다.

북한의 국기가 붉은색 바탕에 오각별을 사용한 것은 신흥국가의 발전을 상징한다. 오각별대신에 농기구를 넣자고 한 사람은 이후 반당 종파분자로 공격을 받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오각별이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영도하에 조국의 통일독립과 장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 인민의 빛나는 승리의 전망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다.<sup>22)</sup> 또한 국기는 전도양양한 신흥국가, 부강화평한 민주국가, 광명발전할 행복한 국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제정당시 북한의 헌법 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흰색으로 가운데가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 달린 편 붉은 쪽의 흰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비폭의

---

22) 임채욱, 『북한 상징문화의 세계』, p. 40.



종횡 비례는 1 대 2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sup>23)</sup>

현재 인공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법(1992.12.11승인) 17조에 의거하여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각급 대의원 선거일, 기타 중요행사 때 게양되는데 김정일 생일과 같이 이틀간을 기념하는 명절 때는 이틀간 게양된다. 항상 게양되어야 하는 장소는 16조에 최고인민회의, 정무원 청사, 김일성 광장, 도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청사 그리고 민 공항 및 중요항구로 지정되어 있다.<sup>24)</sup>

## 나. 애국가

애국가는 북한 헌법에 국가로 규정되어 있다(165조). 기존 사회주의 헌법에는 국장, 국기, 수도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2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가가 추가되었다. 북한 애국가는 상징깃발이 만들어지기 전인 1947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애국가에 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인민들은 해방된 조국 땅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기쁨의 감격을 목청껏 노래하고 싶어하며 『애국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영도 밑에 새생활을 창조하기 시작한 우리 인민의 마땅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인민들의 이처럼 절절한 심정과 요구를 충족시켜 줄 애국가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을 옛날에 부르던 낡은 노래를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국과

23) 실제로는 인공기를 구소련이 만들어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국기에 태극무늬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소련당국이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책, p.43.

24) 김일성, “애국가와 인민군행진곡을 창작할데 대하여: 작가들과 한 담화”(1946년 9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하겠습니까. 인민들에게 속히 이런 애국가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김일성의 독촉에 따라 1947년 5월초에 작사 후보작이 결정되었고, 이 작사에 맞추어 곡이 만들어졌다. 이후 6월 27일 후보곡 두 곡 가운데 김일성은 박세여 작사 김원균 작곡의 작품을 애국가로 정하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가사의 종자와 소재를 잡아주고 곡의 악상까지 지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sup>25)</sup>

애국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1절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모과 마 다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 2절

백두산 기상을 다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 나가리  
솟는 힘 노도로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

25) 북한애국가는 정권 성립이전에 만들어졌으나 전과는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향민은 한국전쟁 이전에 애국가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5.23. 정권수립 직후에는 전통적인 애국가와 새로운 애국가가 혼재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세계일보』 1990.11.23.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애국가는 북한 인민군 창설(1948. 2. 8)부터 공식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임채욱, 『북한 상징문화의 세계』, p. 47.

애국가가 북한의 국가이지만 대내 행사의 경우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하는 경향이 많다. 현재는 「김정일 장군의 노래」로 대신하고 있으며 애국가는 대외행사에서 주로 연주곡으로 불리고 있다. 이것은 애국가가 자연 찬미적이어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sup>26)</sup>

#### 다. 국화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 목란이 등장하여 김일성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1991년 4월 10일 국화로 공식 발표되었다. 김일성은 1964년 5월 황해도 정방산의 한 휴양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함박꽃을 보고 과거를 회상하였고, 김정일은 이에 적합한 꽃을 찾아 김일성에게 보였으며 김일성은 이를 목란이라고 하자고 제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목란이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그대로 담은 것 같으며 과거 항일투쟁시기에도 이 꽃을 통하여 조국을 생각하였다는 것이다.<sup>27)</sup>

현재 목란은 김일성이나 북한정권 관련 상징으로 두로 쓰이고 있으며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한전역에서 목란 심기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는 목란이 꽃들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각종 혁명기념물과 행사장을 장식할 때는 목란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목란은 김일성 집무실인 주석궁 문이나, 주체사상탑의 가단과 탑신에, 국제 친선전람관의 벽이나 천장에도 나타난다. 또한 김일성 훈장에도 목란이 새겨져 있으며, 판문점 통일각 앞에 세워진 김일성 친필 비석에도 사망당시의 나이를 나타내는 82송이의 목란을 볼 수 있다.

26) 위의 책, p. 48.

27) 위의 책, p. 50.

## 라. 기타 상징물

### (1) 당기·당마크

로동당 당기와 당마크 역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북조선 로동당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것이었으나, 김일성이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당마크와 당기가 완성되었다.<sup>28)</sup>

---

28) “우리 당 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과 함께 인테리를 상징하는 붓이 그려져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당마크에 망치와 낫과 함께 붓을 그려넣자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제의를 반대한 사람들의 론거는 인테리가 사회간층으로서 동요하면서 자본가들에게 붙을수도있고 로동계급에서 붙을수도 있기때문에 그들을 당의 구성성분으로 규정할수 없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로동자, 농민들의 힘은 물론 강하지만 인테리가 없이 로동자,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당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과 함께 인테리를 상징하는 붓을 그려넣어 인테리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것이 좋지 않는가, 당신들이 인테리가 자본가들에게 붙을수도 있고 로동계급에게 붙을수도 있는 동요분자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테리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자본가들에게 붙을수 있지만 로동자, 농민이 주인으로 된 새 사회에서는 그들이 있지도 않는 자본가들에게 붙을수야 없지 않는가, 새 사회에서는 인테리들이 로동자, 농민의 편에 밖에 붙을데가없다, 그러니 당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과 함께 인테리를 상징하는 붓을 그려넣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수많은 인테리들이 혁명에 참가하였습니다. 맑스도 인테리였고 레닌도 로동자가 아니라 인테리였습니다. 내가 우리 당 마크에 망치와 낫과 함께 붓을 그려넣도록 한것은 아주 잘한 일이였습니다. 그전에 모택동의 서기를 하던 왕병남이 나를 만나러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당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과 함께 인테리를 상징하는 붓을 그려넣은 당은 조선로동당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일성, “스웨리에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과 한 담화”(1992년 6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 (2) 진달래

광복 후 북한에서는 진달래를 조국의 진달래나 조선의 진달래라고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1939년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으로서의 진군 때 향기로운 분홍빛 진달래가 그들을 부모형제들 처럼 맞아주어 김일성과 김정숙 등 대원들을 숭고감에 사로잡히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진달래는 조국의 광복과 부강한 새 조선의 건설 염원과 잇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달래는 평양의 개신문 아치식 문 테두리에 70송이가 부조되어 있고 김일성 영생탑에도 잡신 양면에 82송이가 새겨져 있다.<sup>29)</sup>

## (3) 붉은색·붉은기

김일성은 붉은기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가치라고 할 정도로 붉은색과 붉은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반면에 백색은 반혁명적이며, 황색은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항일유격대 시절부터 붉은 동무, 붉은 마음, 붉은 바람, 붉은 탄알이란 말을 써왔고, 해방 후에는 붉은 수도, 붉은 교육자, 붉은 예술가, 붉은 중대 같은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붉은 색이 가장 형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깃발이라고 할 수 있다. 1959년에 붉은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후 각급 단체의 조직선전부문에 6대 혁명 붉은기과라는 부서가 생겼으며 심지어 빨간 천을 대량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붉은 치마 헌납운동 같은 것이 벌어지기도 하였다.<sup>30)</sup> 이러한 까닭에서 북한에서는 “붉은색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

29) 임채욱, 『북한 상징문화의 세계』, p. 60.

30) 위의 책, p. 159.

생이 어리어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철학이 깃들어 있는 색”이라고 하고 있다.

붉은기 사상은 1995년에 다시 강조되었다. 김정일은 1995년 8월 28일자 로동신문 정론 “붉은기를 높이 들자”를 통하여 사회주의 고수의 상징으로 붉은기 사상을 강조하였고, 이후 붉은기는 김정일의 신념이자 철학이 되었다.

## 2. 북한 상징의 생성과 유포: 혁명 구호의 경우

### 가. 개념과 기능

일반적으로 슬로건을 표어, 강령이라고 표현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호나 그것을 직관화한 표어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구호란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상, 과업 요구 등을 간결한 형식으로 나타낸 호소 또는 그것을 표현한 글”이라고 말하고 있고,<sup>31)</sup> 표어란 “일정한 사회정치적인 요구나 투쟁목표 등의 실현에로 대중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진 간결하고 호소적인 글을 쓴 대중선전 직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2)</sup>

북한에서는 구호의 근원을 인간사회가 형성된 초창기로부터 서로의 의사를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1930년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반일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승리의 신념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활용되고 급속히 발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구호나무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호

---

3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322.

32) 위의 책, p. 824.

나무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 성원들이 조국 광복의 불타는 일념을 담아 구호들을 쓴 나무로 생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썼으며, 백두산 밀영을 비롯한 국내 각지에서 새로 찾아낸 수많은 구호나무를 혁명전통교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슬로건은 당의 노선과 정책, 특히 현행 시책을 파악하는 자료로 되며, 특히 북한의 현황과 당면 목표 및 그 실행 과정을 정확히 분석 판단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기별 구호들과 현재에 제시된 구호들을 폭넓게 분석하는 작업은 장차 북한의 분야별 전망을 도출해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구호들을 역사적으로, 현행 분야별로 종합하여 분석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의 슬로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오한 분석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구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 로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간략하게 집약하여 제시
- 수령에 대한 절대 복종심, 무조건 충성심 반복 제시
- 당이 제시한 당면 목표 및 과제들을 수시로 제시
-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대남 분야별 중요 과제들의 환수로 대중을 고무추동
-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및 공산주의 필승의 신념을 고취
- 부단혁명의 사상 등을 간명하게 집약하여 반복 교육
-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무장

## 나. 종류

북한의 주요한 정치적 구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강령적 구호: 21세기 강성대국 건설 구호로서 ‘4대제일주의’<sup>33)</sup>
- ② 시기별 구호: 시기별로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그를 완성하도록 선동
- ③ 중요행사시 구호: 당창건 기념일, 정권수립 기념일, 군대 창군일 등 행사시 각 분야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 (1995년 당창건 50주년, 1998년 정권수립 50주년 등)
- ④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대남 등 분야별 당면 과제 제시 및 그 완성에로 선동

(사례)

인민군: 붉은기 정신,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결사 옹호하자  
일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산업분야: 제2천리마 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제철분야: 건설장에서는 강철을 애타게 기다린다

- ⑤ 시사적으로 제시되는 구호: 정세 긴장이나 역량집중이 필요할 시 제시하는 구호

(사례)

사탕보다 총알이, 쌀주머니보다 탄창주머니가 더 귀중하다

- ⑥ 군사훈련 및 건설현장에서 속보 형식으로 제시되는 구호: 군사훈련 상황 변화 시나 건설장에서 돌격작업이 필요할 시 제시하는 구호

- ⑦ 기타: 기념일이나 중요행사시 수시로 제시되는 구호 등

---

33) ① 우리 수령제일주의 ② 우리사상제일주의 ③ 우리 군대 제일주의  
④ 우리제도 제일주의



## 다. 혁명구호가 제시되는 과정

### (1) 작성

당창건기념일, 정권창립기념일 등을 맞아 각분야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강령적 구호는 당중앙 비서국 선전선동부 선전과에서 작성한다. 당중앙 비서국 선전선동부에서는 당 및 정부 각 부서들에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구호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해당부서에서는 당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 분야별 당면과제, 달성해야할 계획 목표, 해당 분야의 중심고리<sup>34)</sup> 등을 고려하여 구호를 작성하여 선전선동부에 제출한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선전담당비서를 경유 총비서의 비준(결재)을 받아 확정한다. 이 과정에 당중앙 조직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조(당창건일 행사는 조직지도부가 총괄하므로 그 일환인 구호의 작성 제시도 조직지도부와 교감 유지)하여야 한다.

군사분야 구호는 선전선동부에서 총괄하는 강령적 구호를 주로 이용하나, 시사적인 구호는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수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이에 따라 총정치국 선전교육부에서 당면과제 가운데 중요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선전담당 부총국장을 경유 총정치국장의 비준을 받아 확정한다. 전투 및 훈련시에 수시로 제시해야 할 구호는 중대와 대대 정치지도원 또는 연대 정치부에서 작성하여 연대 정치위원의 비준을 받아 활용한다. 다음은 군의 혁명구호의 예이다.

“중대를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하자!”

“중대원들은 김정일의 제1결사대, 제1호방위병으로 준비하자!”

34) 사물현상의 연쇄 가운데서 다른 고리들을 규제하는 고리를 말한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산하 각 조직은 산별 구호나 돌격노동 시 구호를 자체로 작성하는데 이러한 구호는 해당 전개된 상황에 따라 각급 당 정치위원들의 비준 하에 작성한다. 다음의 구호가 하나의 예가 된다.

“비료는 쌀이다” “옥수수 는 밭곡식이 왕이다” 등

## (2) 제시 과정 (검열과 후열)

검열은 당에서 작성한 구호이지만 그것을 플래카드나 표어판 등에 제시할 때에는 내각 출판총국 검열부 또는 현지 파견된 검열원들에게 검열을 받고 통과되어야 게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속보판 등은 검열에서 제외된다. 검열원은 당이 제시한 내용이 그대로 게재되었는가, 플래카드나 표어판에 손상된 곳은 없는가, 규격이 적당한가 등을 검열한다. 수열은 해당 구호를 본 대중의 반응을 측정하여 장단점을 상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당창건기념일 등에 제시되는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구호는 당중앙 선전선동부에서 ‘로동신문’을 비롯한 신문 등과 조선중앙통신사 및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등에 배포하여 공개 제시한다. ‘로동신문’ 등의 사설과 논설, 방송 해설 등 내용에 중요 구호들을 포함시키거나 그 구호들을 제목으로 설정,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시한다. 인민군 총정치국과 각 산업별 당기구들에서 자체로 작성하는 구호들은 해당급 정치부들에서 임의로 제시가 가능하다.

## IV. 북한 상징체계의 변화

### 1. 1950년대 혁명구호

1945년도 해방 이후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북한은 한국전쟁을 치르고, 전후복구에 매진하였다. 이 시기의 혁명구호를 로동신문과 조선중앙연감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와 <표 2>이다.

혁명구호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로동신문의 혁명구호 61개 가운데 경제 분야가 40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정치 분야로 12개의 구호가 나오고 있으며, 의식 전환 문제 등이 다음을 잇고 있다. 경제 분야에 대한 구호가 많은 것은 북한으로서는 이 기간이 전쟁복구기인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기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천리마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리마운동과 관련된 구호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구호의 경우 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령이나 김일성과 관련된 구호는 “당과 수령의 령도아래 새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구호와 “김일성 동지가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웅대한 설계도에 따라 계속 전진하자!”의 두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간에 이념의 경우 공산주의와 레닌주의가 혁명구호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1950년대 후반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1950년대)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56	당과 수령의 령도아래 새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정치-수령	신년사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정치단결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근절하자!	일상-의식	1956.3.20
	농업협동조합들간의 증산경쟁을 대중적으로!	경제	1956.3.20
	모든 힘을 당대회 결정 실현을 위하여!	정치-당	1950.4.23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강화와 우리당의 사상 의지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위하여!	경제	1956.9.5
1957	당이 가리키는 행복의 길을 따라 힘차게 앞으로!	정치-당	1957.1.1
	최대한의 절약과 증산을 보장하자!	경제	
	12월 전원회의 결정실천을 위하여 그날 계획을 그날로 초과 완수하자!	정치-당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시키자!	정치-당	4월전당 대회 (4.18)
	제3차 당대회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정치-당	
	조선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레닌주의기치 만세!	이념-레닌	
	근로자들의 전투적 단련의 날 5.1절 높은 로력 성과로!	기타	1957.5.1
	근로단체에 대한 당정지도를 강화하자!	정치-당	1957.12.5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58	절약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경제	1958.1.10
	절약하여 증산하자!	경제	
	민족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하게, 더욱 빨리 건설하자	경제	1958.6.6
	위대한 강령-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천리마로 달리자!	경제	1958.6.13
	모든 재능과 열성을 첫 5개년 계획의 초과완수에로!	경제	
	모기와 파리를 결정적으로 박멸하자!	일상생활	1958.9.13
	집단적 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혀 모두다 한 사람 같이 천리마를 탄기세로 달리자!	경제	
	천리마를 탄기세로!	경제	
	도시위생 월간을 성과적으로 맞이하자!	일상생활	
	모든 힘을 100만 정보의 관개면적 확장으로!	경제	1958.9.30
1959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자!	정치-당	1959.1.1
	사회주의 건설에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고조를 한층 더 높히자!	경제	
	계속 전진, 계속 혁신으로 나라에 더많은 선철, 강철, 강재를!	경제	
	금년은 모든 제품의 질제고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경제	
	문화위생사업을 일상 생활화하자!	일상생활	
	그날 계획은 그 날에 지표별로 초과 완수하자!	경제	1959.1.12
	양양된 혁명적 기세로 계속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자!	경제	
	금년도의 다수확을 위하여 빈틈없이 영농준비를 촉진시키자!	경제	
	나라에 더많은 석탄을!	경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부단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자!	경제	
	5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경제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59	중과주의 사상여독을 청산하며 형식주의,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자!	정치-당	1959.6.24
	기계가 기계를 새끼치고 공장이 공장을 낳는다!	경제	1959.7.04
	밀후작 옥수수를 빨리심자!	경제	
	철도수송능력을 경쟁적으로 높히자!	경제	1959.10.19
	나라에 더많은 질좋은 기계를!	경제	1959.10.22
	부르조야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자!	일상의식	
	모든힘을 금년도 계획완수에!	경제	
	생산성과를 확대하며 수익성을 더욱 높히자!	경제	
	배우고 또 배우자!	경제	
	모든 것을 12월 확대전원회의 결정 관철에로!	일상의식	1960.12.06

조선중앙연감의 경우는 전체 67개의 혁명구호 가운데 경제분야 구호가 6개인 반면 정치적인 구호가 47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이 글의 조사 대상인 로동신문이 1950년대 초반까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중앙연감은 1950년대 초반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1950년에서 1953년까지 3년간은 전쟁시기로 당연히 정치군사적인 구호 일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1950년대 후반에 갈수록 경제에 대한 구호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전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련과 중국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시기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이념 차원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스탈린(우리의 행방의 은인이며 세계 근로인민의 스승인 위대한 지도자 스

떨린 대원수 만세!)이나 모택동(중국인민의 령도자 모택동 주석 만세!) 등 소련과 중국의 최고지도자 개인을 우상화하는 구호도 볼 수 있다. 반면에 김일성에 대한 구호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영광이 있으라!” 하나밖에 없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그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직설적이고, 남한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한 비판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제의 이념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쟁을 치르면서 표현이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자주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남한의 정권과 민중을 분리하고자 하는 입장이 전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동신문과의 조선중앙연감은 언술 방식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로동신문은 짧고 간결한 형식의 혁명구호가 중심이 되는 반면 조선중앙연감은 서술적인 혁명구호가 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매체의 형식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문인 로동신문은 공간의 제약이 있으며, 연감의 경우는 책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감은 기사를 통해서 단순정보를 전달하는 신문과 달리 분석적인 내용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구호자체도 설명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연감에서 상대적으로 국제관계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도 언술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50년대)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51 ~ 52	8.15 해방 5주년 만세! 조선 인민군 만세!	정치-군대	
	우리의 영웅한 남녀 빨찌산 만세!	정치-군대	
	우리조국의 자유와 독립 만세!	정치	
	위대한 쏘련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일제의 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된 8.15 6주년 만세!	정치-소련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에 총궐기한 조선 인민들과 조국 보위의 성벽인 영웅한 우리 인민군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정치-군대	
	미제 침략군대를 반대하여 영웅무쌍하게 싸우는 중국인민지원 부대에 영광이 있으라!	정치-군대	
	우리의 행방의 은인이며 세계 근로인민의 스승인 위대한 지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	정치-스탈린	
	중국인민의 령도자 모택동 주석 만세!	정치-모택동	
	조국의 통일 독립 만세!	정치-통일	
	미제 강탈자를 격멸하라!	정치-반제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영예를 고수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영웅적 인민군대 장병들과 중국인민 지원부대 장병들과 빨찌산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정치-중국	
	우리들의 모든 힘을 영웅적 인민군대를 지원하는데 돌리라!	정치-군대	
	미국 강점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정치-반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정치-군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전투에서 희생된 인민군 장병들에게 영원 불멸의 영광이 있으라!!	정치-군대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53	우리의 영예로운 조선인민군 만세!	정치-군대	
	영용한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정치-중국	
	미국 침략자들은 소멸하라!	정치-반제	
	우리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위한 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용사들에게 영생불멸의 영광이 있으라!	정치-군대	
	영웅적 조선인민군 만세!	정치-군대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정치-군대	
	위대한 쏘련 인민을 비롯한 인민민주주의 제국이 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 인민들과의 국제적 친선단결 만세!	정치-소련	
	조선인민의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정치-당	
	미제 무력침공자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소멸하라!	정치-반제 반한	
	용감한 남녀 빨찌산 만세!	정치-군대	
	미제 무력침범자들과 그 졸도들에게 복수와 죽음을 주라!	정치-반제	
	미제 강도배들에게 수치와 저주를 주라!	정치-반제	
	조선의 자유와 독립만세!	정치	
	우리의 강력한 사회주의 조국 만세!	정치-사회 주의	
	우리의 영웅적 쏘베트 인민 만세!	정치-소련	
	위대한 쏘련공산당 만세!	정치-소련	
백전백승의 맑스 앵겔스 레닌 스탈린의 기치 만세!	정치-소련		
조선인민의 항도적 및 지도적 력량인 조선노동당 만세!	정치-맑스 레닌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53	전 세계 공산당원들과 노동당들의 전위대인 소련공산당 만세!	정치-소련	
	조소 량국 인민간의 영원불멸의 친선 단결 만세!	정치-소련	
	우리의 신성한 강토에 침입한 악독한 원수들의 발밑에서 불이 일어나게 하자!	정치-반제	
	대중에게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라!	의식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영광이 있으라!	정치-김일성	
	모든 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정치-군사	
1954 ~ 55	모든것을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으로!	경제	
	모든것을 전선으로!	정치-군사	
	모든것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	정치-군사	
	조선은 조선사람에게로!	의식-민족	
	외국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끼리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정치-민족	
모든것은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으로!	경제		
1957	조국의 자유와 명예를 지켜 일어서라!	정치	
	조선인민의 민주적 통일 만세!	정치-통일	
	우리 후손 만대의 영예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자!	정치	
	만일 당신들에게 진실로 조국의 운명이 소중하다면 모두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의 대결에 나서라!	정치-통일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58	보통 교육부문 일꾼들은 자격향상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교육방법과 교육지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을 다함으로써 후대들의 교육에 보다 빛나는 성과를 쟁취하자!	사회생활	
	우리들은 사상 정치적 및 실무적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의식	
	우선 맑스-레닌주의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선진 쏘베트 교육리론과 교육방법을 광범히 섭취하여 일체 교육교양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온갖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 및 형식주의와 용서없는 투쟁을 전개하자!	이념-맑스레닌	
	우리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사업에서 더욱 책임성을 제고하여 정부의 교육시책과 결정지시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애국적 열성과 창의 장발성을 발휘함에 동시에 일체 무책임한 현상과 간결히 투쟁하자!	사회생활	
	한평의 땅도 묵이지 말고 남김없이 복구하여 파종면적을 확장하여 미곡, 잡곡, 두류, 소채, 겨류, 공예 및 유사작물등의 성장 수확고를 현저히 높이자!	경제	
	모든 것을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에로!	경제	
	우리들은 이미 있는 관개 시설들을 복구 수리하여 강물을 막아 보전 신설하고 또 저수지를 광범히 조성하여 지하수를 탐사 이용하여 천수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만들며 장차 받을 눈으로 전환시켜 단위당 수확고가 높은 벼농사를 더 많이 짓자!	경제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58	설계와 시공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쏘련의 선진기술과 제인민 민주 국가들의 건설경험을 적극 섭취하여 우리들의 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투쟁을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전개하자!	경제	
	우리는 우리 앞에 제계되는 모든 기술적 문제들을 능히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	경제	
	각종 수단을 다하여 우리의 기술수준을 제고하며 기술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자!	경제	
	건설에 있어 악독한 자본주의 잔재인 청부식 사업 방법을 하루 속히 청산하는 투쟁을 강화하자.	경제	
	조선정권을 고착시키며 정권으로 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이행을 위하여 투쟁하자	정치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론리적 위훈을 세우라!	경제	
	미국군대를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의 동시 철거를 위하여 투쟁하라!	정치-반제	
	모든것은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복구 발전에로!	경제	
	새로운 교육적 성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자!	사회생활	
	교육교양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교원들의 고귀한 경향을 일반화하며 우리들의 모든 재능과 지식과 정력을 전후 교육발전을 위한 투쟁에 돌리자!	사회생활	
전체 근로자들은 기술을 배우며 새 기술을 창조하자!	경제		

## 2. 1960년대 혁명구호

1960년대 북한은 전후복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동시에 1950년대 후반부터 추진한 유일지배체제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념적으로 주체사상이 대두되었고, 독자적 노선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화되었던 기간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 혁명구호는 <표 3>(로동신문)과 <표 4>(조선중앙연감)에 정리되어 있다.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 총 167개 가운데 경제 관련 구호는 69개로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치분야 구호가 91개로 1950년대와 달리 위상이 역전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념과 사상교양 분야의 혁명구호들이 뒤를 잇고 있다. 혁명구호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정치 중심으로 가는 것은 1966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진다. 1966년의 경우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 25개 가운데 정치가 15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정치 관련 구호의 빈도가 많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용상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 시기에 정치적 구호는 당이나 반제 등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김일성 및 수령에 대한 강조가 압도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도 1966년이 중요한 고비가 되고 있다. “당과 수령의 주위에 뭉친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이다!”라는 구호는 여전히 당과 수령이 동격이기는 하지만 이전 시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이었다. 1967년부터는 당도 탈락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번영하는 우리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식의 수령만이 유일한 중심으로 대두된다. 또한 비슷한 시기를 기점으로 항일유격대에 대한 강조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념적으로도 여전히 “조선 인민을 승리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레닌주의기치 만세!”라고 말하고 있듯이 맑스-레닌주의가 중심이지만 “모든 부문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자!”와 같이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청산리 정신과 대안

의 사업체계 등과 같은 균중운동을 바탕으로 한 경제건설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전 시기에는 국가수준의 경제건설이 주로 강조되었던 반면, 1960년대에 들어서는 “전국 도처에 산을 개간하여 과수원과 상전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자!,”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자!” 와 같이 나무심기, 소비재 문제 등 일상 경제에 대한 강조도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광물생산량을 더욱 증대시키자!,” “모든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자!”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혁명구호가 등장하고 있다.

일상 생활부분에서는 학습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혁명적으로 학습하자!”라고 하거나 “맑스-제닌주의 원리와 우리당정책을 심오히 학습하자!” 등 사상교양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1960년대)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0	있는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자!	경제	1960.1.2-3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완충기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자!	경제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경제	
	일별, 월별, 분기별 계획의 초과완수에로!	경제	
	조합일이자 나의일이라는 정신으로!	일상의식	
	대중의 창조적 열성을 적극 동원하여 로동생산률을 부단이 높히자!	경제	
	자급비료의 생산과 반출을 전인민적으로!	경제	
	기술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설비리용률을 부단히 높히자!	경제	1960.07.26
	8.15명절을 계속 혁신, 계속전진으로!	경제	1960.08.15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부단이 높히자!	경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 혁신을 균중적 운동으로!	경제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각하는 천리마 작업반 대렬을 더욱 확대하자!	경제		
천리마 작업반들의 경험을 광범히 일반화하자!	일상의식		
김일성 동지가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웅대한 설계도에 따라 계속 전진하자!	정치-수령		
농기계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자!	경제		
12월 확대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의 관철을 위하여 전면적 기술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	경제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자!	정치-이념		

42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1	우리당의 혁명적 기풍 청산리 방법으로!	정치-당	신년사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정치-당	
	모든힘을 제4차당대회 결정 관철어로!	정치-당	
	당대회 문헌을 심오히 학습하자!	정치-당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진진, 계속혁신을 일으키 자!	정치-당	
	강철 12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 철광성 생산 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경제	
	당중앙위원회 제4기 2차확대 전원회의 결정관철 을 위하여 모든힘을 여섯 개 고지 점령어로!	정치-당	
	100만톤 알곡 증산을 위하여 새해 영농준비를 철저히 하자!	경제	1961.01.02
	12월 확대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의 관철을 위하여 전면적 기술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	경제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 더많이 생산하자!	경제	
	100만톤의 알곡증산에 화력을 집중하자!	경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투쟁을 균중적 운동으로!	경제	
	비달론 공장 건설을 촉진시키자!	경제	
	모든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자	경제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시키며 공업과 농 업의 모든 전선에서 새 비약을 이룩하자!	정치-당	
	청산리 방법을 계속 관철하며 모든사업을 주동 적으로 조직하자!	경제	
	전국 도처에 산을 개간하여 과수원과 상전을 대 대적으로 조성하자!	경제	
	녀맹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키 자!	경제	
	조소 량국 인민간의 영구불멸의 친설단결 만세!	정치-소련	
당에 충직하고 능력있는 일군을 더많이 더 훌륭 히!	정치-당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2	6개 고지를 향하여 앞으로	경제	1962.1.2-3
	여섯개 고지 점령을 위하여 앞으로!	경제	
	알곡 5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	경제	
	그날 계획은 그 날에 초과 수행하자!	경제	
	당세포를 생기발랄한 전투적 보루로!	정치-당	
	<<10만톤.군>>창조운동에서 경쟁의 불'길을 더욱 높히자!	경제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정치-반제	
	반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히들자!	정치-반제	1962.03.12
	한일정치회담을 분쇄하라!	정치-반남	
	6개 고지의 령마루를 향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	경제	
	당사업에서 청산리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경제	
	반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히들자!	정치-반제	
	<<추수전투>>의 불길을 더욱 높히자!	경제	1962.1
	광물생산량을 더욱 증대시키자!	경제	
	모두다 새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경제	1962.12
	모두다 <<120일 전투>>의 최후 돌격전으로!	경제	
	미제의 조종하에 감행되는 범죄적 <<한일회담>>은 분쇄하라!	정치-반제	
전체인민이 무장하며새로 온나라를 요새로 만들자!	정치-군사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정치-당	1962.12.18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노선을 관철하자!	정치-군중	1962.12.20	

44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3	새해 1963년을 새로운 위대한 승리의 해로 맞이하자!	정치	1963.1.2-3	
	10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정치		
	천리마의 고삐를 튼튼히 틀어쥐고 계속 앞으로!	경제		
	그날 계획은 그날로!	경제		
	기계와 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철저히!	경제	1963.1.18	
	<<한달에 한건 이상의 새기술 도입 운동>>을 확대하자!	경제		
	로력배치를 청산리 방법으로	경제	1963.2.12	
	3개월분 이상의 예비 부속품을!	경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자!	정치-반제	1963.4.22	
	레닌의 혁명적 사상은 영생불멸이다!	이념-레닌		
	백전백승의 레닌의 기치따라!	이념-레닌		
	기술발전 계획을 실행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경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경제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경제		
	<<15일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자!	경제		1963.5.21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1인당 생산액을 높히자!	경제		
	씨래질을 앞세워 모내기 속도를 높히자!	경제		
제4기 제7차회의의 문헌학습을 실속있게!	사회-교양	1963.9.24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정치	1963.10.28		
정당 500키로그램 중수운동을 확대하자!	경제			
철도전기화의 영예로운 투쟁에서 다시한번 천리마 로선의 기상을 떨치자!	경제	1963.11.3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4	천리마의 기세로 모두다 새 전투에로!	경제	신년사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자!	경제	
	진력의 증산과 절약 투쟁을 균중적으로!	경제	1964.1.17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경제	1964.1.25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더욱 촉진시키자!	정치-사상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일으키자!	정치-통일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 실천에로!	경제	1964.3.9
	농촌의 전기화를 더욱 촉진시키자!	경제	1964.5.19
	수상동지의 강령적 교시를 받들고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가 되자	정치-수령	
	수직갱건설에 전환을 일으키자	경제	1964.9.1
	공화국 기치밑에, 더 힘차게 앞으로!	정치	1964.9.9
	당과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조선 인민 만세!	정치-당	1964.9.10
	석탄생산량을 2배로!	경제	1964.11.5
	혁명적으로 학습하자!	사회-교양	1964.12.13
	모든힘을 년간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에로!	경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찰하여 모든 부문에서 계속 양양을 일으키자!	경제	1964.12.24
1965	천리마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경제	신년사
	제4기 제10차 전원회를 결정을 받들고 기술혁신 강화하여 더 많이 생산하자	경제	
	바쁜 농사일을 전인민적으로 힘있게 도와주자!	경제	1965.5.11
	제4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열심 전력관리사업을 전당적, 전군중적운동으로!	경제	
	천리마 진군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자!	경제	
	당의 기치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	정치-당	1965.10.10
	있는 설비의 리용률을 더욱 높히자!	경제	1965.11.5
	강하천 공사를 균중적 운동으로!	경제	
	기술혁신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자!	경제	
정당 500키로그램 증수운동을 균중적으로!	경제	1965.11.28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6	새해에 새투지로 절약하며 증산하자!	경제	신년사
	모든일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자!	정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속품을 부품별, 규격별로 더 많이 생산하자!	경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자!	정치-반제	1966.1.10
	군은 뒤떨어진 농장을, 농장은 뒤떨어진 작업반을, 분조는 소출이 낮은 포전을 모두 앞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경제	
	나무를 많이 베어 건설장에!	경제	
	찾아낸 예비를 어김없이 실현하자!	경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록음이 우거지게!	경제	1966.3.16
	조선로동당과 일본공산당간의 전투적 단결 만세!	정치-국제	
	한사람처럼 단결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타승하자!	정치-반제	
	나라의 크나큰 은혜, 알곡 증수로 보답하자!	정치-반제	1966.5.1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불패의 위력 만세!	정치-수령	
	강철의 혁명대오 앞으로!	정치	
	탁월한 령도자 김일성동지를 모신 조선인민군은 불패이다!	정치-수령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자.	정치-항일	1966.5.3
	우리당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지킨다.	정치-자주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임무에 충실하자!	정치-항일	
	당의부름 받들고 계속혁신, 계속진진!	정치-당	1966.5.3
	우리의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군대이다.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전사로!	정치-군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 진군을 다그쳐 나가자!	경제	
	항일유격대처럼 혁명임무를 끝까지 관철하도록!	정치-항일	1966.8.12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일으키자!	경제	
	외세를 배격하고 주체를 일으키자!	정치-주체	
	자주성을 옹호하자!	정치-자주	1966.8.12
	모든 부문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자!	정치-주체	
	재일조선 공민들의 귀국협정을 무조건 연장하라!	정치-국제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우리당정책을 심오히 학습하자!	이념-레닌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7	당과 수령의 주위에 뭉쳐 혁명의 길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정치-수령	1966.10.5
	당에 대한 충실성- 이는 혁명가의 생명이다.	정치-수령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따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치를 반석같이 다지라!	정치-수령	
	당과 수령의 주위에 뭉친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이다.	정치-수령	
	한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국방력을 강화하자!	정치-군사	1966.10.11
	당대표자 결정을 받들고 있는 밀천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더 좋게, 더많이 생산하자!	정치-당	
	1967년, 새해에 더욱 큰 승리를 쟁취하자!	정치-당	신년사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정치-수령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튼튼히 틀어쥐고 새해, 새전투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정치-군사	
	일별계획을 그날로 빠짐없이 끝내자!	경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자!	사회-교양		
196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번영하는 우리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정치-수령	1967.12.14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흉악한 살인음모를 분쇄하고 검거 투옥된 애국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정치-반제반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정치-자주	
	조선은 김일성 수상이 령도하는 불패의 나라이다!	정치-수령	
	경애하는 수령의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제시한 위대한 정강을 철저히 관철하자!	정치-수령	
	수령께서 제시하신 우리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정치-수령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8	수령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새해 새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정치-수령	신년사
	10대 정강이 밝혀줄 승리의 길따라 앞으로!	정치-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자	정치-수령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라!	정치-수령	
	미제 침략자들은 일본과 아세아에서 당장 물러가라!	정치-반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10대 정강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진군을 더욱 다그치자!	정치-수령	
	모든부문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자!	정치-주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자!	정치-수령	
	군민일치-불패의 힘	정치-군사	
	인민군 창건 20주년을 앞두고 사업과 생활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정치-군사	
	수상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정치-수령	
	당이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로 틀림이 없다!	정치-군	
	날마다 새기록, 새기준을 창조하자!	경제	
	우리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정치-주체	
	우리당의 자위군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진국은 요새화하자	정치-군	
	일당백의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정치-군	
	당정책 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	사회-교양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 농업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경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자!	정치-군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8	김일성 동지께 일편단심 충직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자!	정치-수령	1968.1.2-3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더 많은 강철을 일으키자!	경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을 혁명적 고조예로	정치	
	조선은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전진한다!	정치	1968.9.9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	정치-수령	
	조선은 온나라가 철벽의요새이다	정치-군	1968.12.29
1969	우리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정치-유일사상	1969.1.3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정치-수령	
	천리마 진군을 더욱 다그쳐 7개년 계획의 높은 령마루에 승리의 기를 휘날리자!	경제	1969.7.2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하자!	정치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자!	경제	1969.12.1
	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서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정치-당	
새로운 천리마 속도를 창조하자!	경제		
1970	조중 두나라 인민들 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친선단결 만세!	정치-중국	1969.6.28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가자!	정치-반제통일	
	당 제5차대회에 빛나는 로력전선들을 드리기 위해 천리마의 기상을 시위하며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달리자!	정치-당	1968.1.5
	우리당 제5차 대회에 만고대풍을 선물하자!	정치-당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들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사가 가능하였던 1960년대 연감의 구호 47개 가운데 8개만

이 경제관련 구호였고, 나머지는 이념을 포함하여 정치분야를 다루는 구호였다. 특히 1968년도나 1969년도는 중앙연감에 표시된 혁명구호의 숫자도 이전보다 대폭 증가되면서 대부분이 정치와 관련된 구호로 채워져 있다. 또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자!,” “수령의 명령 지시 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등 유일지배체제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선중앙연감과 로동신문의 경우가 차이가 있다면, 국제적인 문제와 통일문제와 관련된 혁명구호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프로레타리아와 국제주의 친선단결 만세!”와 같이 전세계적 수준의 계급혁명을 강조하는 구호도 있으며, “월남인민의 투쟁은 곧 우리의 투쟁이다!”와 같이 구체적인 국제문제에 대한 구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남녘땅 형제들을 잊지말자!,” “남녘땅을 해방하자!,” “우리의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넘겨주자!” 등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구호도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에는 서술적 형식이었던 조선중앙연감의 혁명구호도 간결해짐에 따라 조선중앙연감이나 로동신문에 나타나는 혁명구호의 언술 형식의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제와 관련된 구호의 경우에도 전쟁을 경험하였던 1950년대와는 달리 적대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형식은 지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양 매체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60년대)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1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자!	경제	
1963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	정치-소련	
1965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자!	경제	
1968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으로 관철하자!	경제	
	김일성 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정치-수령	
	대안의 사업체계 만세!	경제	
1968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 결정을 관철하자!	정치-당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자!	정치-수령	
	전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 하자!	정치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자!	정치-수령	
	항일투사들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자!	정치-항일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자!	정치	
	전 인민을 무장하고 전국을 요새화하자!	정치-군사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튼튼히 틀어잡자!	정치	
	피는 피로써 왼췌들에게 천백배로 복수하자!	정치-반제	
	일당백으로 무장하자!	정치-군사	
	남녘땅을 해방하자!	정치-통일	
	우리의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넘겨주자!	정치-통일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은 단결하라!	정치	
	월남인민의 투쟁은 곧 우리의 투쟁이다!	정치-국제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	정치-소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68.2.16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69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자!	정치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	경제	
	진세계 혁명 만세!	정치-국제	1968.5.9~11
	조선 혁명 만세! 우리당의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정치-주체	1968.9.9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조선 인민 만세!	정치-수령	
	우리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자!	정치	
	진세계 혁명 만세!	정치-국제	
	프로레타리아와 국제주의 친선단결 만세!	정치-국제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정치-국제	
	반제 반미 투쟁을 강화하자!	정치-반제	
	위대한 10대 정강을 철저히 관철하자!	정치-수령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정치-반제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정치-반제	
	우리당의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정치-주체	
	수령의 명령 지시 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정치-수령	
	천리마 대진군 만세!	경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자	경제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자!	정치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 결정을 관철하자!	정치-당	
	남녘땅 형제들을 잊지말자!	정치-통일	
	일제의 재침략책동을 분쇄하자!	정치-반제	
	일당백으로 준비하자!	정치-군사	
	우리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자!	정치-통일	
맑스-레닌주의 기치 만세!	이념-맑스레닌		
천리마의 속도로 달리자!	경제		

### 3. 1970년대

1970년대에 특사를 교환하면서 북한은 남한과 7·4공동선언에 합의하는 등 단기적으로 화해의 분위기를 잠시 경험하였으나 이후 남북대화가 다시 단절되고 남북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헌법을 정비하는 등 체제 단속에 매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자료 획득의 문제로 인하여 조선중앙연감만을 대상으로 혁명구호를 조사하였다(<표 5> 참조).

조사된 혁명구호는 총 63개였는데, 경제관련 구호는 12개인데 비해 정치관련 구호가 42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구호는 과거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예로!”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등 경제적 곤란함이 드러나는 구호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 만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와 같이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건설이나 생산구호와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북한이 1970년대에 들어 경제문제 특히 식량문제가 중요해진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절약과 식량 관련 구호는 1977년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부터 결핍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구호 가운데서는 수령과 관련된 것이 17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항일유격대와 관련 있는 것이 7개이고 주체사상과 관련된 것이 2개로서 1960년대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술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수령님의 요구가 곧 우리들의 기준량이며 공칭 능력이다!”식으로 단순히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

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자!”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높히 받들고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가자!”하는 식으로 일상생활 수준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전시기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유일지배체제가 사회저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일유격대를 강조하는 것도 여전하며, 수령에 대한 구호와 마찬가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수준에서 항일유격대 정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기치 만세!”라는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기본적인 이념의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미군철수 등 반미 선동 그리고 반일 선동 등 반제에 대한 혁명구호도 지속되었으며, 박정희에 대한 비판 등 남한 정권에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들어 동일구호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인데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70년대)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71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조선로동당 제5차 중앙위원회 결정서
	강선속도(새로운 천리마 속도)	경제	
	수령님의 요구가 곧 우리들의 기준량이며 공칭 능력이다!	정치-수령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박정희 도당에게 저주 가 있으라!	정치-반제 반한	1970.6.25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은 당장 물러가라	정치-반제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	사회생활	1971 신년사
1972	김일성 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인민 혁명군 창건 마흔뒸 만세!	정치-수령	1971.4.25
1973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 하기위한 투쟁을지지 성원하자!	정치-국제	1972.6.4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자	정치-반제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기치 만세!	이념-맑스 레닌	
	피로써 맺어진 조중량국 인민들의 전투적 친선 단결 만세	정치-국제	
	반제 반미 투쟁을 강화하자!	정치-반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 만세!	정치-수령	
	속도전!	경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72.12.25
1975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말라!	사회생활	1974.1.10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74.9.24
	조선로동당 창건 30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정치-당	1975 신년사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76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정치-항일	1975.1.15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	사회생활	
	70일 전투	경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도 첫째가는 의무이다!	사회생활	1975.2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	사회생활	1975.10.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정치-수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돌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당 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정치-수령	1975.10 왕재산동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자!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함복도 현지교시를 무조건 옹호 관철하자!	정치-수령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정치-항일		
모든힘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 건설에로!	경제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77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에로!	경제	1976 신년사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	경제	1976.3.4~5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자!	정치-수령	1976.4.17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정치-주체	3대혁명 소조운동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정치-항일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에로!	경제	1976.10.14
	전체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자!	정치-수령	1976.11.8~9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연개조 5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가자!	정치-수령	1976.11.12~ 14(호소문)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정치	1976.12.14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정치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따라 배우자!	정치-수령	
	모두다 증산하며 증산하자!	경제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경제		
1978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룩하신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자	정치-수령	1977.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정치-수령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정치-항일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	사회생활	1977.8.20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경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정치	1977.9.5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7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자!	정치-수령	1977.9.5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정치-항일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따라 배우자!	정치-수령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정치-주체	
1979	수송혁명 200일 전투	경제	1978 신년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정치-수령	1978.9.9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 만세!	경제	1978.9.10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로선 만세!	사회생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만세!	사회생활	
	70일 애국운동	정치	

#### 4.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북한은 내외적인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였다. 이산가족을 교환하는 등 단기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없지 않았으나 남한과는 여전히 적대적 갈등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북한의 전후복구와 산업화는 점차 한계에 봉착한 반면, 남한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시기였다.<sup>35)</sup> 내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각되었으나, 외부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소련 연방의 해체를 포함하여 동구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북한의 고립화가 심화되었던 기간이기도 하였다.

35)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국력추세비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1980년대의 조선중앙연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혁명구호는 총 74개이다(<표 6> 참조). 이 가운데 정치와 관련된 구호가 41개로 가장 많았고, 경제와 관련된 구호는 23개였다. 그 밖의 것은 교양이나 학습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구호들이었다. 경제적인 구호의 경우 지난 시기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모든 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히자!”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구호가 고루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쌀은 곧 공산주의다!”나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와 같이 식량과 관련된 구호도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공업분야에 대한 구호가 1970년대에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80년대 들어 북한의 산업전반이 침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관련 구호에서는 수령에 대한 것이 7개이나, “조선 인민의 조국통일 위업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하는 식의 통일관련 혁명구호가 6개나 된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이 밖에도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와 같이 반제구호도 통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통일관련 구호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시기에도 남한 특히 집권자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나, 1980년대에 들어 통일에 대한 구호가 많아진 것은 남북관계가 변화되었다거나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8년 이후에 통일관련 구호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동구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북한의 체제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새로운 체제유지의 상징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990년에 나온 “세계평화 만세! 전쟁을 반대한다. 핵무기를 반대한다

다!”라는 혁명구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전투적인 분위기의 구호와는 달리 평화 및 반전을 강조한다는 것은 역으로 북한체제의 수세적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987년도 나온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는 동구의 와해 과정에서 독자노선을 분명히 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북한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를 것임을 주민들에게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생활 부문에서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라!” “청년들이여,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80년대 속도 창조를 위한 총돌 격전의 기수가 되고 영웅이 되자!” 등이 주요 구호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에서 ‘새세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80년대)**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80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정치-항일	1979.9.27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81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정치-당	1980 신년사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	경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히자!	경제	1980.3.21~ 22(연설)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경제	1980.6.28~ 30(연설)
1982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	정치-당	1981 신년사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만세!	정치-수령	1981.4.14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 라	정치-수령	1981.10.20
	로동계급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핵심부대가 되라	사회-청년	1981.12.19
1983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 군 하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정치-3대 혁명	1982 신년사
	80년대 속도	경제	
	천리마 대고조 시기의 기세로 80년대 속도를 창 조하자!	경제	1982.7.9
	청년들이여,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80 년대 속도 창조를 위한 총돌격전의 기수가 되고 영웅이 되자!	사회-청년	1982.10.25
	모든 힘을 150만톤의 유색금 속도지 점령예로!	경제	1982.9.12
	26호선반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	사회생활	
	5.18 무사고 정시 견인 초과운동	경제	
1984	80년대 속도	경제	1983 신년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 선로동당 만세!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 목숨 바취 싸우자!	정치-수령	1983.4.25
	모든힘을 전투준비와 전투력 강화예로!	정치-군사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정치-반제	
	살인악당 전두환을 타도하자	정치-반남	1983.6.25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정치-통일	

62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84	미제는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라!	정치-반제	1983.6.25
	나토의 로켓들을 해체하라!	정치-국제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자!	정치-당	
	주체사상 만세!(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정치-주체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너는 김혁, 나는 성주	정치-항일	
	전당과 전체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만세!	정치-통일	1983.9.9
	위대한 공업강국 만세!	경제	
	대안의 사업체계 만세!	경제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자!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정치-수령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83.11.16
1985	80년대 속도	경제	1984 신년사
	제2차 7개월 계획 완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경제	
1986	모두다 1985년 6월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에 로!	경제	
1987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86.10.24( 소련공산당 연회)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경제	김일성 고급당학교 강의록(역 대구호)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정치-군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	경제	
	짧은 끈 공산주의다!	경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사회-주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사회-항일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87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정치	
1988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정치 - 반 제	1987.6.25
	민족반역자이며 매국노인 전두환역적을 타도하자!	정치-반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자!	정치-반한	
	살인귀 미제는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정치-반제	
	조선 인민의 조국통일 위업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정치-통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87.10.10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경제	
1989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사회	1988.5.15
	양키는 제집으로, 남북은 통일로! 가자 한나에서 오라 백두에서, 만나자 관문점에서!	정치-반제 통일	1988. 남북학생 회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자!	정치-당	1988.9.9
	80년대 김혁, 최광수가 되자!	정치-항일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정치	
	당을 받드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자!	정치-당	
	공화국의 기치따라!	정치	
	주체(자주, 자립, 자위)	정치-주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만세!	정치-수령	
	제3차 7개년 계획 수행에로!	경제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	정치	
	대건설 행군 총진군 앞으로!	경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만세!	경제	
	조선은 하나다!	정치-통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자!	정치-주체		
조국 김일성/ 내나라 제일/ 당을 따라 천만리	정치-수령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0	양키는 제집으로, 남북은 통일로! 가자 한나에서 오라 백두에서, 만나자 판문점에서!	정치-통일	1989 신년사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정치	
	조선은 하나다!	정치-통일	1989 세계청년 학생축전
	세계평화 만세! 전쟁을 반대한다. 핵무기를 반대한다!	정치-국제	
	모두다 90년대 김진, 이수복이 되자!	사회생활	1989.12.23 ~25

## 5.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건국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에는 반세기동안 절대권력을 갖고 북한을 지배하였던 김일성이 사망하였고, 국가사회주의 몰락으로 그 동안 북한이 의존하였던 사회주의 국제경제 체제가 와해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복된 자연재해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져,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체제위기를 초래하였다. 결국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로 규정하고 위기 탈출에 부심하였다.

한편 총리급회담을 통하여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남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핵개발과 NPT 탈퇴로 촉발된 북미간의 갈등은 제네바 합의로 봉합되었으나, 여전히 국제적인 고립을 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2000년에 들어서서 6·15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다양한 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나 북한의 체제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로동신문과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는 <표7>과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로동신문에서는 총 123개의 혁명구호를 찾았는데 이 가운데 경제와 관련된 것이 13개이고 기타 학습 등 사회생활에 대한 구호는 6개였으며, 나머지는 이념을 포함한 정치 관련 구호였다. 이 시기에 정치관련 구호가 많았던 것은 근본적으로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관련 구호 가운데 수령 관련 구호가 24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높이 받들고 주체위업 끝까지 완성하리!” “위대한 수령은 우리와 영원이 함께 계신다!” 등과 같이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된 구호가 많다.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하여 김정일이 혁명구호의 전면에 부각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김정일과 관련된 구호는 26개나 되어 오히려 김일성 관련 혁명구호보다 더욱 많다. 흔히 김정일이 1980년부터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생전에는 주요 혁명구호에 김정일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상징의 정점은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집중적으로 김정일 관련 구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상징의 승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관련 구호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관련한 구호가 현재까지 등장하는 것은 김일성이 갖는 정치적 상징의 효용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정치 관련 혁명 구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당 관련 구호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당 관련 구호는 수령관련 구호와 비교할 때 비율이 작았으나 이 시기에는 조사 대상 가

운데 19개가 당과 관련한 것이었다. 김정일과 김일성 관련구호를 하나로 묶는다면 당 관련 구호의 비율 상대적으로 작아지지만, 이전 시기에 비교한다면 당 관련 구호가 적지 않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위기상황이 심화되면서 당의 역할이 다시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력과 상징승계에서 당을 매개로 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000년의 경우를 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 로선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등 당 관련 구호는 3개인 반면 김정일 관련 구호는 2개로 오히려 당 관련 구호가 많다. 2001년에 처음 등장한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자!”라는 선군정치 구호에서도 당의 우선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당의 붓대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적극 추동하자!”라는 당 관련 구호가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선군정치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자!” 등과 같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와 같이 보편적인 사회주의와 관련된 구호가 자취를 감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상징되는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구호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관련 구호는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강선이나 대흥단, 봉화 그리고 천리마 등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강조하여왔던 중요한 사례를 반복하고 있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백전불굴의 혁명전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



의 경제건설을 최대한 다그치자!”라든지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내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등과 같이 생산이나 경제생활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구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과 함께 경제구호의 경우도 추상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경제난을 극복할만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여의치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기간에 경제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선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생활과 관련된 구호에서는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대와 관련된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들은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의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 데서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자!” 라든지 “청춘을 받치자, 조국을 위해!”라는 혁명구호는 새세대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로동신문에 나타난 혁명구호(1990년대)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0	90년대 속도	경제	1990 신년사
	강선의 정신, 천리마의 정신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경제	
	당의 령도따라 90년대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총진군 앞으로!	정치-당수령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자!	정치-통일	
	모두다 혁명적 열정과 패기에 넘쳐 올해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제	
1991	모두다 올해 전투의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 총돌격 앞으로!	경제	1991.1월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렬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자!	정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정치-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정치	
199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사회주의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정치-수령	1992.1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높이 힘차게 앞으로!	정치-3대혁명	
	당 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정치-당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	정치-당	
	백전불굴의 혁명진신, 자력갱생이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최대한 다그치자!	경제	1992.12월
1993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식 사회주의 더욱 빛내여 가자!	정치-수령	1993.1월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	정치-당	1993.3월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3	주인다운 립장에서 훈전을 절개하면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자!	경제	1993.7월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높이 발휘하여 우리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꽃피워 나가자!	사회생활	1993.12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전당, 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목숨이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이 온 사회를 차넘치게 하자!	사회생활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정치-주체	1993.8월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자!	정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높은 실력을 가지고 일하는 진짜배기 일군이 되자!	정치-당수령	1993.9월
	모두다 떨쳐나서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속도>>를 창조하자!	경제	
1994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자.	경제	1994.1월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 총진군은 힘있게 다그치자.	경제	
	항일의 불길 속에 이룩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 다져진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이어 곳곳이 싸워나가자!	정치-반제	1994.2월
	사회주의는 승리하고 제국주의는 망한다는 진리를 신념으로 조직하고 사회주의의 한길로 곳곳이 싸워나가자!	정치-반제	1994.3월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에 넘쳐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자!	정치	1994.6월
	새세대들은 우리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이 준비시키자!	사회생활	
	당세포는 우리당을 받드는 초석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진지이다.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	정치-당	1994.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치-수령	1994.7월
	인민은 크나큰 슬픔 속에서 아버지 수령님과 영결한다.	정치-수령	
	경애하는 수령님의거룩한 영상 여원히 인민들의 심장속에 주체혁명의 붉은기를 대를 이어 나붓거리!	정치-수령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4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님을 우리르며 한생을 살리!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님의 뜻 받들어 주체위업 대를 이어 완성하자!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높이 받들고 주체위업 끝까지 완성하리!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정치-수령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끊임없는 현지도도로 조국을 빛내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정치-수령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정치-수령	
	김일성주석은 진정으로 위대하고 헌신적인 수령!	정치-수령	
	슬픔을 힘으로 바꾸자!	정치-수령	
	위대한 령도자의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자!	정치-김정일	
	민족의 령수 김정일 장군님의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성업을 기필코 실현하자!	정치-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이 불멸의 혁명업적을 억만년 빛내어 나가자!	정치-수령	
	우리수령님은 영원한 하늘이시다!	정치-수령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내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경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정치-수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와 우리 인민은 혼연일체이다!	정치-김정일	
	용기백배, 기세를 드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정치-김정일	
	당과 수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도한 신념을 가지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자!	정치	
당의 령도를 받들어 높이 받든 주체혁명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정치-당	1994.12월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4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 인민군은 백전백승 혁명적 무장력이다.	정치-김정일	
	우리당을 주체형의 혁명적인 당,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에 나가자!	정치-당	1994.10월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영웅적 위훈으로 조직 동원하자!	정치	1994.9월
	당과 수령의 불멸의 업적은 견결이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자!	정치-수령	
1995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정치-당	신년사
	위대한 수령은 우리와 영원이 함께 계신다!	정치-수령	
	김정일 장군님은 단군민주의 령수, 7천만 일심으로 김정일 장군 받들자!	정치-김정일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의 동지의 크나큰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정치-김정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	정치	
	당 창립 50돐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정치-당	
	모두다 떨어져나서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속도>>를 창조하자!	정치-우리식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은 최고사령관을 모신것은 조선의 자랑, 민족의 영광!	정치-김정일	
	공동사설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자!	정치-당	
	위대한 수령님 사업방법대로 일해 나가자!	정치-수령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있다!	정치-김정일	
	김정일 동지는 21세기를 향도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정치-김정일	1995.4월
혁명의 주인답게 모든일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하자!	정치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5	일심단결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정치-우리식	
	우리 모두 어깨걸고 주체의 대행진에 발맞추어나가자!	정치-주체	
	위대한 수령님 식대로 일해나가자!	정치-수령	1995.6월
	일편단심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충신이 되자!	정치-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자!	정치-김정일	1995.8월
	청년들은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의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자!	사회생활	1995.9월
	청춘을 받치자, 조국을 위해!	사회생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자	정치-김정일	1995.10월
1996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정춘실 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사회생활	1995.11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정치-우리식	
	붉은기를 높이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정치-김정일	
199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자!	정치-김정일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은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정치-당	
	항일혁명전통으로 더욱 튼튼이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하자!	정치-항일	
	우리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자!	정치-우리식	
	혁명적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정치	
	당의 령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정치-당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8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정치-당	공동시설
	모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여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정치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땅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정치-김정일	
	온 사회를 우리당의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하자!	정치-붉은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가자!	정치-수령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정치	
1999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정치	공동시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자!	정치-김정일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 로동당 계급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정치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정치-반제	
	김정일 각하는 21세기의 빛나는 태양!	정치-김정일	
	일군들은 제2의 천리마 대진군에서 전위기수가 되자!	경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땅 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정치-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자!	정치-김정일	

74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2000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경제	공동시설
	우리의 리상과 포부는 강성대국 건설이며 승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주의 기치이다!	정치-주체	
	로동계급은 천리마 대진군의 앞장에서 역세계 싸워나가자!	경제	2000.5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따라 아버지 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정치-김정일	2000.8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 로선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정치-당	2000.9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정치-김정일	2000.10월
	조선로동당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정치-당	2000.11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자!	정치-당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위력으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정치-붉은기	
	아버지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당의 령도 따라 힘차게 전진하자	정치-수령	2000.12월
2001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결루를 열어나가자	정치	2001.1월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생화력을 어높이 발양시키자!	정치-선군	2001.2월
	종자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자!	이념	2001.3월
	대흥단 사람들의 투쟁기풍으로 당정책을 결사 관철하자!	경제	2001.10월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사상의 위력으로 실천하자!	정치-김정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은 우리당과 우리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자!	정치-김정일	
	당의 붓대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적극 추동하자!	정치-당	2001.12월
	출판노동일군들은 주체의 필봉으로 당을 옹위하는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과 충실한 대변자가 되자!	경제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2002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의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정치-수령	2002.1월
	당의 전투적 호소따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으로!	정치-군사	
	선군정치는 우리시대 반제 투쟁의 유력한 무기이다!	정치-반제	2002.4월
	라남의 봉화를 높이들고 강성대국 건설의 혁명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경제	
	선군기치높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정치-군사	2002.6월
	위대한 수령님 유훈 활짝 꽃피워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정치-수령	2002.7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높은 뜻 실적으로 받들어 나가자!	정치-김정일	2002.8월
	위대한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을따라 전진하는 우리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정치-선군	2002.10월
	4대 제일주의는 조선의 기상이며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	정치	
	항일의 애국주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가자!	정치-항일	2002.11월

1990년대 이후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는 110개이다. 경제 관련 구호는 3개이고 사회와 관련된 것은 7개이며 나머지는 정치 관련 구호로 정치 관련 구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로동신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분야별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치적 구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세부내용에서는 역시 수령과 관련된 구호가 42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관련된 구호가 15개이다. 당에 관한 것은 22개이며 군사문제 반제국주의 문제 그리고 통일관련 구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구호는 로동신문과 마찬가지로 1994년과 1995년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김정일과 관련된 구호는 김일성 사후부터 빈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2년도에 처음으로 김정일 관련 혁명구호가 나왔다는 것은 1990년대 초부터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가 공개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당과 관련된 구호가 많은 반면 선군정치 관련 구호가 적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도나 2001년도 중앙연감에서도 선군정치 관련 구호가 없다는 것은 선군정치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로동신문과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통일과 관련된 구호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통일의 꽃 림수경과 문익환 목사를 당장 석방하라!”라든지 “가자 한라에서 오라 백두에서, 만나자 판문점에서!” 등 넓은 의미에서 통일 관련 구호는 8개나 된다. 1980년대에 서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체제유지를 위한 상징매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01년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통일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생활과 관련된 혁명구호는 로동신문과 마찬가지로 “소년단원들은 우리당의 참된 충성동, 효자동이 되자!” “청년들을 사랑하라!” 등 청소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 조선중앙연감에 나타난 혁명구호(1990년대 이후)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1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90.5.25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	정치-자주국 제	
	조선은 하나다!	정치-통일	1990.8.18
	증산하고 절약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 토대가 은을 내게 하자!	경제	1990 전국생산자 혁신대회
	90년대 속도	경제	
	전군이 3대혁명의 기수가 되자!	정치-3대혁명	1990.9.28~29
1992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91 신년사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일심단결)	정치-당	
	인민대중중심주의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정치-우리식 우리식	1991.5.5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항일의 혁명선렬들이 위대한 한별동지 만세!	정치-김정일	1991, 각계각층 맹세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만세!	정치-김정일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사회생활	1991.6.4~5

78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을 따라 배우자!	정치-김정일	1991.6.6
	학습도 생활도 항일아동단 식으로!	사회생활-항일	
	당의 령도따라 사로청의 뒤를따라!	정치-당	
	검덕을 지원하자!	사회생활	
	북과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조국통일 5개 방침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떨쳐 나서라!	정치-통일	1991.6.25
	민족반역자이며 매국노인 노태우력도를 타도하자!	정치-반한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념원은 오직하나 조국통일!	정치-통일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자	정치-통일	1991.8.14 4
	남조선의 전대협과 청년학생들의 자주,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지지성원하자!	정치-통일	
	북과남의 청년학생들은 조국통일의 기수가 되자!	정치-통일	
	백두에서 한나까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자!	정치-통일	
	통일의 꽃 림수경과 문익환 목사를 당장 석방하라!	정치-반한통일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정치-우리식	
	우리당에 충실한 혁명 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	정치-당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정치-항일	1991.8.20~ 30	
모든 중대를 충신, 효자의 전투대오로 만들자!	정치-군사	1991.12.25 ~26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3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정치	1992 신년사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일심단결)	정치-당	
	나무 한대 베고 열대 십자!	경제	1992.8.10 림업을 더욱발전 시킬데대 해
	영웅적 조선인민군 참전 60돌 만세!	정치-군사	1992.4.25
	김일성동지만세! 김정일동지만세! 일심단결만세!	정치-수령	
1994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치	1993 신년사
	전당, 전민, 전군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정치	
	항일유격대의 군수관처럼 살며 일하자!	정치-항일	1993.3.5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정치-수령	1993.4.9
	90년대의 김진, 리수복이 되자!	정치	
	전군을 혁명화하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	정치-군사	
	훈련도 전투다!	정치-군사	
소년단원들은 우리당의 참된 충성동, 효자동이 되자!	사회생활	1994.6.6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정치	1994.1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유훈관철에 떨쳐나섰다!	정치-수령		
1995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치-수령	1994.7.8
	경애하는 어머니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할 것이다.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정치-수령	
	조선아 자랑하자.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었던 영광을!	정치-수령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할 것이다.	정치-수령	1994.7.1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다.	정치-수령	
	아버이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치-수령	
	진 인류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세기와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릴 것이다.	정치-수령	
	김일성 주석은 단군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이시다.	정치-수령	
	인민은 크나큰 슬픔 속에 아버지 수령님과 영결한다.	정치-수령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을 빛내여 가자.	정치-수령	
	슬픔을 힘으로 바꾸자.	정치-수령	
	태양의 역사는 영원하리!	정치-수령	
	그리움에 사무쳐 찾는 만수대 언덕!	정치-수령	
	우리 수령님은 영원한 하늘이시다!	정치-수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업적은 천년만년 길이 빛나라	정치-수령	1994.7.20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정치-수령	
	전당, 전민, 전군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치-수령		
오늘의 슬픔과 힘과 용기로 바꾸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정치-수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정치-김정일	1994.10.16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5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 만세!	정치-수령	1994.10.17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정치-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정치-수령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90년대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자!	정치-수령	
	전당, 전민, 전군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정치	
1996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정치	1995.6.19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만세!	정치-김정일	1995.7.1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정치-김정일	1995.10.10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정치-항일	1995.12.25
1997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정치	1996.6.6
	청년들을 사랑하라!	사회생활	1996.8.24 청년전위와의 담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일심단결)	정치-당	혁명적군 인정신
	나를 따라 앞으로!	정치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8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사회생활	1997.1.24
	사회주의의 승리가 보인다!	정치	1997.2.24 ~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정치-수령	1997.4.25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받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령도 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정치-김정일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정치-김정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정치-김정일	1997.4.26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정치-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정치-수령	1997.7.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치-수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	정치-수령	1997.8.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정치-수령	
일심단결! 결사옹위! 총폭탄! 성취!	정치		
1999	청년들을 사랑하라!	사회생활	1998.2.13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정치	1998.2.27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정치-주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정치	1998.3.16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정치-통일	1998.4.20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리!	정치-김정일	1998.9.5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애국운동에서 새정진을 이룩하리	정치-김정일	
김정일 령수님을 높이 받들고 통일운동에 나서리	정치-김정일		



년도	슬 로 건		비 고 (일자)
1999	공화국 창건 50돌을 사회주의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정치	1998.9.9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정치-김정일	
	일심단결! 결사옹위! 강성대국!자력갱생!	정치	
2000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정치	1999.1.1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정치-김정일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가자!	정치	
	김정일 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정치-김정일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정치	1999.2.16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령수 만만세!	정치-김정일	
	총폭탄! 결사옹위!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정치	1999.3.2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정치-수령	1999.4.13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	정치-수령	1999.7.4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정치	1999.11.3	
2001	당 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정치-당	2000 신년사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경제	2000.1.24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정치	2000.2.3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아들여 모시자!	정치-수령	2000.4.13
	일심단결! 동지애!조선로동당!	정치-당	2000.10.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드려 모시자	정치-수령	2000.10.12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정치-김정일	

## 6. 북한 상징체계 변화의 의미

정치적 상징체계가 정치적 주장들의 전달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며, 상징적 수행이란 정치체제의 다양한 수행능력들 가운데 하나로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자본의 축적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상징체계 변화는 시대변화에 조용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에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전쟁복구에서 1960년대까지의 사회주의 산업화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어 온 체제위기에 불구하고 북한이 내적 통합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치적 상징체계의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혁명구호의 변화의 특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건국 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혁명구호의 핵심은 사회주의 이념과 근대국가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맑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하였고, 사회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을 이상향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또한 식민지를 경험한 사회주의 제3세계국가로서 반제가 중요한 상징체계로 상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경제발전이 이념체계 못지 않게 중요한 상징체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혁명구호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정치적 상징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성립이라는 국가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식민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의 발발 원인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이 입은 막대한 손실은 반미로 상징되는 반제국주의가 중요한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나 이상향으로서의 소련과 같은 상징들은 이후 정치적 의미가 퇴색되거나 폐기되었던 것과 달리 반미-반제라는 정치적 상징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 경험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상관없이 반미-반제는 정치적 설득에 꾸준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핵심적인 정치적 상징이 된 반미-반제는 부정적 사고 그리고 적개심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건설이나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과 같은 긍정적인 정치적 상징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적대적 의식을 부추기는 반제가 정치적 상징의 핵심이라면 체제 자체가 폐쇄적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도 배타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대적인 상징체계는 지배집단에게는 대외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내부적인 정치적 갈등을 억누르고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식민지 경험과 결합한 전쟁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가운데 반제가 중요한 정치적 상징으로 작용함에 따라 북한 사회에서 전투적 분위기가 일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1960년대의 혁명구호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상생활의 개선에 대한 혁명구호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 전후복구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축이 일단락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1960년대 중반을 고비로 혁명구호가 크게 바뀌는데 핵심은 수령론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유일지배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각종 구호는 분명히 이전 시기에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유일지배체제가 마무리된 것이 이 즈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전반까지는 혁명구호가 특정 부분의 사업을 독려하거나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1960년 후반부터는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지배체제 정당화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이나 통일 혹은 반제 등 여타 혁명구호는 위계상으로 수령의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혁명구호가 정치적 상징체계의 하나라는 점에서 볼 때, 1960년대 후반부터는 김일성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체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곧 조선로동당이이기 때문에 당적 지배는 수령적 지배로 전환되는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수령은 북한체제와도 동일한 것이 된다. 또한 김일성은 ‘불패’이기 때문에 체제의 관리나 운영을 전적으로 김일성이 ‘령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sup>37)</sup> 따라서 일반 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충성하고 김일성의 사상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절대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것이 항일유격대와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항일유격대는 역사적 정당성을 김일성에 부여하는 것이고 주체사상은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격대 정신을 상기하는 구호나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구호 모두 궁극적으로 수령론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이 핵심적인 정치적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체계의 내용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절대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무결점하고 완벽한 김

36) “당과 수령의 주위에 뭉쳐 혁명의 길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다!”(1966년)라는 식으로 초기에는 김일성과 당이 동격이었으나, 점차 “조선은 김일성 수상이 령도하는 불패의 나라이다!”(1967년)하는 식으로 김일성의 우선성이 확보되어간다.

37) 군사(“탈원한 령도자 김일성동지를 모신 조선인민군은 불패이다!”)에서 사상(“수령께서 제시하신 우리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그리고 통일문제(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가자!) 까지 수령의 령도는 전 분야에 걸치게 된다.

일성은 절대 선이 되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곧 악이 된다. 따라서 김일성 이외에 사람에게서는 절대 충성만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이외의 사람들은 판단중지가 필요하게 된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하여야 하고,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자발적인 충성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초개인적인 차원에서 김일성의 절대적인 권위 체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절대주의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이 시기에 처음 나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혁명구호는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꾸준히 반복되는 것으로서 전체주의를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적 상징은 1970년대에 들어 사회체제 전반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수령 관련 혁명구호가 추상적이었다면 1970년대는 군인, 청년, 노동자 등 사회집단에게 수령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혁명구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전매체인 문학예술이 이 시기에 수령형상문학 일색으로 변화하는 것도<sup>38)</sup>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진행된 김일성 중심의 권력 집중화라는 정치구조적인 환경변화가 수령론이 혁명구호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환경은 1970년대에도 여전하였고, 유일지배체제로 표현되는

---

38) ‘피바다’나 ‘꽃파는 처녀’ 등 5대혁명가극을 ‘성황량’ 등의 5대 혁명 연극 등 기념비적 작품들이 완성되고 보급되고, 김일성의 삶을 소재로 한 ‘불멸의 력사’(소설), ‘조국의 별’(영화)가 창작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권력집중화는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수령에 대한 혁명구호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혁명구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장의 지체라고 하는 경제구조차원의 문제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빈도가 높아지는 식량관련 구호의 등장이나 자립경제를 강조하는 구호들은 북한체제가 겪기 시작한 경제적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지는 식의 구호는 발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1950년대나 1960년대의 경제구호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가 북한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발전모델이었기 때문에 자립경제를 강조한 것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력갱생’과 연결된다면 발전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생존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 시기 혁명구호에 등장하는 ‘사수’라는 단어까지 덧붙여 생각한다면 미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 다분히 수세적인 담론으로 정치적 상징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가 심화되는 1980년대에 등장한 ‘우리식’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비교의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즉, 보편적인 수준의 발전 혹은 성장의 개념을 북한체제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교나 상대적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북한체제가 처한 위기상황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수용할 수도 있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 빈도가 많아지는 통일관련 혁명구호도 위기의식을 완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일관련 구호가 많아졌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위

기 상황을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제위기의 정당화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1980년대의 통일관련 구호의 내용도 과거와는 다소 다르다. “남녘 땅 형제들을 잊지말자!”라는 1969년의 혁명구호는 자신들이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1989년의 “조선은 하나다!”하는 구호는 당위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남쪽은 해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라에서 백두에서 출발해서 판문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통일의 공동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변화도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위기 심화와 이에 따른 상대적인 북한의 위상하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평화를 강조하는 구호 역시 북한이 위축되었으며,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한 현실에서 대외적인 타협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등장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세대 관련 혁명구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대문제는 특정 시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1980년대에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북한사회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는 나이에서 오는 연령효과(aging effect)와 동일한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동기효과(cohort effect)로 나뉘어 지는데, 특정 시점에서 세대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북한에서 동기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즉,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과 사회주의

39)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이 많은 경우 동기효과가 중시되는데, 분단, 전쟁, 산업화 등을 겪은 남한의 경우도 동기효과가 세대문제에서 중요하다. 이우영,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일반적으로 386이라고 할 때, 30대를 의미하는 3은 연령효과이고,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은 동기효과를 의미한다.

국가 건설기를 경험하지 못한 ‘새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북한의 특정 세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장하였던 시기가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고 11년제 무상의무교육체제 갖추어진 이후였음에도 이들 세대가 정치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학교수업을 포함하여 각종 학습체제 그리고 선전선동이 핵심인 북한 언론과 문학예술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자랑하는 정치 사회화 기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불신은 북한 사회체제 변화 자체에서 기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1950년대 이후의 사회주의 산업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북한의 새세대들도 개인주의 경향의 늘어나는 등 산업화 이후 세대의 경향을 띠게 되는 반면, 이전세대가 경험하였던 혁명열기는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사상적 통합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 등 북한이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의 혁명구호는 이전시기보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이후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였던 최고지도자에 대한 추모가 혁명구호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김정일이 핵심적인 정치적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라는 물리적 교체가 혁명구호의 변화를 가져온 일차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빈도가 적어지긴 하였지만 오늘날까지도 김일성에 대한 혁명구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이 갖는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물리적 차원을 넘어섰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김정일과 관련된 혁명구호와 김일성에 대한 혁명구호는 언술구조나 내용에서 커다란 차이는 없다. 대표적인 것이 ‘충직’을 강조하면서 ‘사



수'를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김일성이 갖고 있었던 절대성을 김정일에 대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의 물리적 교체가 최고 상징의 교체를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내적인 구조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성이나 전체주의와 같은 기본적인 담론구조는 최고지도자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의 혁명구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통일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통일관련 혁명구호가 체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강화된 경향이 없지 않다면, 체제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심화되었던 1990년대에도 통일관련 구호가 강조되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경우는 1980년대와는 남북간관계에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총리급회담의 개최는 합의서의 서명으로 이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남북한간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에 통일관련 구호가 많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변화도 통일관련 혁명구호가 빈번해지는데 어느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분위기 가장 고양되었던 정상회담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통일관련 구호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통일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조건에 따라 수단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40)</sup>

북한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혁명구호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다음의

40) “민족의 령수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성업을 기필코 실현하자!”와 같은 구호를 보면 통일과 지도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다.

첫째, 혁명구호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초기에는 경제 분야와 관련된 혁명구호가 많았고,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에는 정치적 구호 특히 수령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구호가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구호가 정치적 상징체계로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면 혁명구호가 체제변화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우 체제변화에 맞추어서 혁명구호가 시의 적절하게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혁명구호 그리고 정치적 상징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혁명구호는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체제에 주민들을 통합시키는 기제로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체제변화가 혁명구호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시기별로 보면 변화의 주된 요인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까지는 전쟁과 전후 복구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요소들이 혁명구호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1960년대에는 유일지배체제의 성립이라는 정치체제 특히 권력구조의 변화가 혁명구호의 내용 변화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경제적 침체가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심각한 경제위기가 혁명구호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남북관계의 변화가 시기별로 영향을 미쳤으며, 새세대 관련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화의 진전도 혁명구호와 무관하

지 않은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체제의 변화에 따라 혁명구호의 내용이 바뀌었지만, 1960년대 이후 정치적 구호의 비중이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던 시기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던 시기는 물론이고 체제위기가 심화되던 시기에도 정치적 구호가 지배적인 것은 북한체제 자체가 정치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제난의 극복이나 일상생활의 개선 그리고 사회발전 자체도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물질적 인센티브를 사회적 동력의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윤리적 인센티브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에서 이념 및 정치의 중요성이 더한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대 후반 즉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혁명구호가 많아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기제를 강조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도가 현상적으로 체제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위기타파에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여러 가지 혁명구호가 존재하지만 각 혁명구호 간에는 일종의 위계관계가 있으며 그 정점에는 김일성(사후에는 김정일) 관련 구호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혁명구호를 중심으로 북한의 상징체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이나 유지가 아니라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의 완성과 유지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관련 혁명구호 자체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을 절대시하는 내용은 처음이나 현재나 차이가 없지만, 초기에는 단순히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 머물렀지만 점차 사회의 각 사회체제나 사회집단과 관련시키는 등 김일성 관련

혁명구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사, 경제 일상생활 그리고 통일의 문제까지 김일성과 연관시키고, 김일성 사후에도 김일성 관련 구호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up>41)</sup> 혁명구호 뿐만 아니라 각종 혁명적 조형물이나 문학예술작품 심지어 역사적 경험과 꽃과 같은 자연물마저 김일성 중심으로 위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상징으로 김일성이 절대화된 이상 김일성의 물리적 존재여부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30년 넘게 김일성 관련 혁명구호가 중심적인 위상을 갖고 반복됨에 따라 주민들을 북한체제와 김일성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과거지향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의 혁명구호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건국초기에는 미래지향적이고 공세적인 구호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를 거치면서 항일유격대의 경험이 강조되고, 이후 현재에도 천리마가 강선 등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 강조된다. 물론 대흥단이나 봉화와 같이 현재 시점의 모범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 여전히 핵심은 항일유격대, 천리마 운동과 같이 과거사가 된다. 복고적인 경향이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사수’나 ‘결사옹위’와 같은 말에서 드러나듯이 체제유지를 강조하는 구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 대해서도 해방의 대상에서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제와 관련된 혁명구호는 여전히 전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평화를 강조하는 등 한결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41) 평양시내의 주요 건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혁명구호가 장식되어 있는데 다른 혁명구호들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과 달리 석물을 이용하는 등 반영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 V. 맺음말

어떤 사회체제든지 상징체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한 상징체계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사회에 속한 사회구성원들은 상징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상징체계는 사회체제가 구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필요성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굴곡이 없이 자연적으로 근대국가로 전환한 국가들의 상징체계가 자연스러운 과정에 구축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달리 특정한 발전모델을 상징하고 사회체제를 구축해 국가들은 지향하는 사회체제에 적합한 상징체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2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제3세계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상징체계는 기존의 체제와의 단절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체제와 권위구조의 정당화라는 맥락에서 인위적인 상징체계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상징체계 특히 정치적 상징체계에서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 북한이 구축한 정치적 상징체계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체제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고안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도 북한의 정치적 상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경험 그리고 유일지배체제의 성립과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체제위기 등이 북한 상징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 민족해방이라는 국가 설립 목표가 점차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유일지배체제의 유지로 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상징체계들도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 핵심에는 수령 김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민족해방이라는 국가 설립의 목표가 점차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유일지배체제의 유지로 전환되어 갔듯이 북한의 상징체계들도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 핵심에는 수령 김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일지배체제의 공고화와 정치적 상징의 핵심으로서 수령은 북한사회체제를 강력하게 통합하는 기제로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침체가 시작되고, 1980년대 후반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심각한 체제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수령중심의 상징체계는 더욱 강화되고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정치적 상징체계를 그 자체로 본다면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위계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적응하면서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효율성이 체제의 유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960년대 이후 구축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의 유지에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적인 체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효율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북한체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체제의 개혁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구축된 상징체계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체제전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고의 발현을 위해서도 기존의 상징체계는 역기능적일 수 있다. 오랜 기간 정교하게 구축된 상징체계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절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삶에 익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북한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상징체계를 고안하거나 기존의 상징체계를 전환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현 북한체제의 지도부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미래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차원에서도 현 단계 북한의 상징체계는 문제가 적지 않다. 체제이념의 우열은 차치하고라도 남한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나 다원주의 등이 정치적 상징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절대주의나 전체주의적인 요소들이 정치적 상징체계에서 심화됨으로써 양극은 더욱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국기(國旗)나 국가(國歌)와 같은 물리적 상징체계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의식적인 수준의 상징체계의 이질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 통합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교류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문

- 강명구·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연구.” 『한국사회학』31집.1997봄.
-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1992.
-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문옥표 옮김. 서울: 까치, 1998.
- 김병로. “북한사회의 통합방식과 기독교의 유사성.”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 편.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두란노, 1994.
- \_\_\_\_\_. “북한의 자발적 사회통합 메카니즘.” 『북한체제의 유지 MECHANISM』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8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 (1995. 11. 10) 발표논문
- \_\_\_\_\_.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의 비교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Eliade, M.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박규태 옮김. 서울: 서광사. 1991.
- 유영욱. “북한통일정책의 상징성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 1995.
- \_\_\_\_\_. “김정일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상징전략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1996.
- 유영욱·정우일. 『상징정책론』. 서울: 흥익제, 1991.
- 유일상·목철수 편저. 『세계선전운동』. 서울: 이우, 1989.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임채욱. 『북한 상징문화의 세계』. 서울: 화산문화, 2002.
- 정일준. “왜 부르디외인가? 문제는 ‘상징권력’이다,” 『상징폭력과 문화 재생산』. 서울: 새물결, 1995.
- Cassirer, E. 『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의 개념 외』. 오향미 옮김. 서울: 책세상, 2002.
- 카지와라 카게야키. “상징론.” 아야베 쓰네오 엮음. 이종원 옮김.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서울: 인간사랑, 1987.
- Pierre Lavroff. “사회주의 선전: 그 역할과 행태.” 박호진 엮음. 『문화·계급·선전』. 서울: 백산서당, 1986.
-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 1998.

## 2. 영문

- Blumer, Herbert.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New Jersey: Prectice, Hall, 1969.
- During, Somon eds. *The Cultur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3.
- Durkheim, 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Joseph Ward Swain. Glencoe, Free Press, 1947.
-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 Selected Essays*.

New York : Basic Books, 1973.

Urban, W. *Language and Reality : The Philosophy of Language and the Principles of Symbol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Pub, 1939.

### 3. 북한원전

김영희. “우리나라 국장과 국기에 깃든 이야기.” 『조선문학』. 1974. 1.

김일성. “애국가와 인민군 행진곡을 창작할데 대하여: 작가들과 한 담화”(1946년 9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_\_\_\_\_. “민주조선건설에서의 선전일군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각도선전관계책임자련석회의에서 한 연설, 1947년 9월 7일). 『김일성저작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스웨리예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과 한 담화”(1992년 6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김주경. “우리나라 국장과 국기에 깃든 이야기.” 『조선문학』. 1978. 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연감」 평양:조선중앙통신사, 각호.

「로동신문」 각호.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  
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쇄/2002년 12월 28일

발행/2002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서병철

편집인/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등록/제2-2361호(97. 4. 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8 팩시밀리 901-2546

© 통일연구원, 200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

ISBN 89-8479-144-X 93340

가격 5,500원